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기술경영학 석사 학위 프로젝트 보고서

지역 창업생태계 활성화 분석 모델을 이용한 부산지역 기술창업생태계 특징에 관한 연구



부경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기술경영학과

전 성 훈

기술경영학 석사학위 프로젝트 보고서

지역 창업생태계 활성화 분석 모델을 이용한 부산지역 기술창업생태계 특징에 관한 연구

지도교수 손재학

석사학위 논문에 준하는 보고서로 제출함.

2020년 8월

부경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기술경영학과

전 성 훈

전성훈 의 기술경영학 석사학위 프로젝트보고서를 인준함.

2020년 8월



위 원 장 공학박사 배 정 철 (인)
위 원 경제학박사 이 민 규 (인)
위 원 경영학박사 손 재 학 (인)

목 차

표 목 차	iii
그림목차	v
Abstract	vi
I. 서 론	1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2. 연구의 방법과 구성	2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4
1. 창업과 기술창업	4
1) 창업에 대한 정의	4
2) 기술 창업	5
2. 창업생태계	8
1) 창업생태계의 정의	8
2) 국내 창업생태계 현황	11
3. 창업생태계 관련 선행연구	17
III. 부산 창업생태계 지표 측정 모형	19
1. 연구모형 설계	19
1) 측정 지표 설계	19
2) 단계별 지표 설계 내용	20
2. 자료처리 및 분석방법	26
3. 부산지역 조사대상과 조사방법	27

IV. 부산지역의 특징분석	28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28
2. 부산지역 창업생태계 인식 현황	29
3. 파일럿 테스트 결과와 부산지역 창업생태계 비교	43
V. 결론	45
1. 연구 결과의 요약	45
2. 연구의 시사점과 한계점	47
참고 문헌	48
1. 국내·외 문헌	48
2. 보고서 및 기타	49
부록:설문지	51



표 목 차

<표 2-1> 창업에 대한 정의 -----	5
<표 2-2> 기술창업의 다양한 정의 -----	6
<표 2-3> 산업 분류 체계에 따른 기술창업과 일반 창업의 유형화 -----	7
<표 2-4> 창업생태계 세부 영역 및 구성 요소 -----	10
<표 2-5> 창업지원 사업별 창업자금 규모(2017년 3월 기준) -----	13
<표 2-6> 2016년 중앙부처 창업지원 -----	14
<표 2-7> 2016년 시·도별 창업지원 -----	16
<표 2-8> 선행 연구 목록 -----	18
<표 3-1> 선행연구·FGI를 통한 1차적 도출 지표 -----	21
<표 3-2> 델파이조사를 통한 1차적 도출 지표 -----	22
<표 3-3> 델파이조사를 통한 2차적 도출 지표 -----	23
<표 3-4> 최종 도출된 정량, 정성 창업생태계 측정지표 -----	25
<표 3-5> 지표별 가중치 -----	26
<표 4-1> 조사대상자 기업형태, 사업 분야 -----	29
<표 4-2> 정책(Policy) 지표 측정 -----	30
<표 4-3>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의 벤처캐피탈 투자유치 경험 통계 -----	30
<표 4-4> 지역별 엔젤투자자 현황 -----	31
<표 4-5> 지역별 벤처캐피탈 현황 -----	31
<표 4-6>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의 정책자금 수령 경험 및 금액 통계 ---	32
<표 4-7> 기업가정신실태조사(개인편/기업편)조사의 투자 유형 통계 ----	32
<표 4-8> 재무적 환경(Finance) 지표 측정 -----	32
<표 4-9> 문화(Culture) 지표 측정 -----	33
<표 4-10> 기업생멸행정통계의 지역별 활동기업 수 및 신생기업 생존율 통계 -----	34

<표 4-11> 시장(Market) 지표 측정	34
<표 4-12> 창업주의 과거 창업 경험 및 결과 통계	35
<표 4-13> 기업가정신, 창업교육 프로그램 운영 형태 통계	35
<표 4-14> 대학알리미의 창업교육지원현황 통계	36
<표 4-15> 전국부산 사업체 종사자 수와 연구개발인력, 하이테크 종사자 수 현황	37
<표 4-16> 인적자원(Human capital) 지표 측정	37
<표 4-17> 지역 경제활동 인구나 창업보육센터 및 창업선도대학 통계	37
<표 4-18> 지원(Support) 지표 측정	38
<표 4-19> 부산 지역 GRDP와 연구개발투자비 통계	38
<표 4-20>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의 협력활동 경험률 통계	39
<표 4-21> 시도별 지식재산 현황 통계	40
<표 4-22> 지식(Knowledge) 지표 측정	40
<표 4-23> 부산지역 창업생태계 측정 연구 결과	42
<표 4-24> 창업 생태계 파일럿 테스트 결과와 부산지역 결과 비교	43

그 립 목 차

<그림 2-1> 창업생태계의 구조 -----	8
<그림 2-2> 청년창업생태계의 구성 체계 -----	9
<그림 2-3> 50개 경제국에서 총 초기 기업가 활동(TEA) 비율 -----	11
<그림 2-4> 5년 이내 0, 1-5, 6명 이상 고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초기 창업 기업 -----	12
<그림 3-1> 지역창업생태계 활성화 정도 지표 도출 과정 -----	19
<그림 3-2> 선행연구와 FGI로 도출된 창업생태계 측정지표 -----	20
<그림 3-3> 정량지표 측정 데이터 -----	24
<그림 4-1> 조사대상자 기업 형태, 사업 업종 분포 -----	28
<그림 4-2> 부산지역 기술창업생태계 측정 결과 요약 -----	41
<그림 4-3> 부산지역 측정 결과와 A지역(대도시) 비교 -----	44

A Study of Characteristics of Busan Region's
Technology Business Ecosystem Using an Analysis Model
for the Invigoration of Regional Business Ecosystem

Seonghun Jeon

Graduate School of Management of Technology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Currently, the Korean government is giving its full support for childcare, education, funding for the establishment of businesses, and such in order to successfully create a business ecosystem. In other words, the Korean government is nurturing technology and venture businesses by supporting highly creative and innovative businesses which were newly set up. This study, based on 'the development of analysis model and index for the invigoration of regional business ecosystem' of Korea Institute of Start-up and Entrepreneurship Development(KISED), aims to figure out the characteristics of Busan region's business ecosystem in the field of technology business.

To measure the regional business ecosystem, indicators were developed by using FGI and Delphi method, subfactors of major indicators were constructed, and those were classified into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indicators. Quantitative indicators were calculated using domestic data, and qualitative indicators were calculated using the results of survey.

In conclusion, this study suggests that understandings of angel investors, venture capital inflows and investments shall be deepened, efforts to turn R&D workforce and workforce in the high-tech sector out shall be put and such workforce shall be secured in order to create a successful business ecosystem in the Busan region.

I.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929년의 경제 대공황 이후 2007년 시작된 세계 금융 위기는 대공황에 버금가는 세계적 수준의 경제적 혼란을 발생시켰으며, 이후 세계 경제의 침체가 장기화되었다. 또한 ‘마이너스 성장’, ‘고용 없는 성장’의 시대로 접어들어 선진국에서도 실업률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최근 실업률이 일정 부분 완화되었음에도 14% 이상 지속적인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다고 한다(최관섭, 2018).

세계경제포럼(WEF)에서 공식 발표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걸쳐 사물인터넷(IoT), 빅 데이터(BigData), 인공지능(AI), 3D 프린팅(3Dprinting), 블록체인(Blockchain) 등 신기술 기반의 혁신이 일어나고 있으며, 기존 제조와 서비스 업종의 패러다임이 급변하고 있다. 영미권, 유럽권 국가와 동아시아의 중국은 서비스 및 제조업 등 자국의 강점을 활용하여 새로운 생태계를 구성해 글로벌 주도권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스타트업으로 시작한 해외 선도기업들은 인터넷 플랫폼과 기존 비즈니스 혁신을 통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고 자국의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주도하고 있다(오정택, 2018).

창업의 유형 중에서도 기술창업은 기술집약형, 혁신형, 기회추구형 창업으로 정의할 수 있는데, 상대되는 개념의 생계형 창업에 비하여 경제적 파급효과와 고용효과가 더 큰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KISTEP, 2017). 하지만 기술 창업의 경우 성공하기까지 필요한 시간과 비용이 생계형 창업에 비하여 높은 편으로, 주요 국가들은 참신성과 혁신성을 갖춘 기술 창업 기업을 발굴하고, 창업 성공 가능성을 상승시키기 위하여 창업 공간, 교육, 자금 등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국내 창업생태계의 성공적 조성을 핵심 키워드로 설정하였다. 이에 대한 핵심활동으로 창업에 대한 자금, 보육, 교육 등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이영주, 2018), 기존 중소기업에도 지원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기존 대기업 중심의 경제 성장이 아닌, 혁신성과 창의성이 높은 신규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으로 기술 및 벤처 창업을 육성하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국내 창업환경은 17년 기준으로 신설 법인 수가 9만개를 초과하고 벤처펀드가 4조원 넘게 결성되어 ‘창업-벤처붐’, ‘벤처투자 증가’등 양적으로는 크게 증가하였으나(오정택, 2018), 내부적으로는 세계적인 유니콘 기업을 전혀 배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창업 공간, 교육, 자금 지원이 활발한 창업생태계는 서울에 집중되어 수도권에 편중현상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한국 창업학회 정책포럼, 2017; STEPI, 2016).

본 연구에서는 국내 창업 지원의 심장인 중소벤처기업부와 창업진흥원이 공동으로 연구한 ‘지역 창업생태계 활성화 관련 분석 모델·지표 개발’의 분석 모델과 지표(정책, 재무적 환경, 문화, 시장, 인적자원, 지원, 지식)를 통해 부산지역 내 기술창업 분야를 중심으로 창업생태계 현황을 살펴보고 부산 지역 창업생태계의 특징을 도출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방법과 구성

본 연구의 방법은 부산 지역 창업생태계의 실질적 분석을 위하여 창업진흥원(2019) ‘지역 창업생태계 활성화 관련 분석 모델·지표 개발’ 자료를 토대로 창업생태계 측정을 위한 7개의 지표(정책, 재무적 환경, 문화, 시장, 인적자원, 지원, 지식)를 도출하고, 정량적·정성적 지표로 나누었다. 정량적 지표 측정을 위한

데이터 수집과 정성적 지표 측정을 위한 설문조사를 부산지역 내 기술창업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하여 부산지역 창업생태계 현황과 특징에 대해 도출하고, 창업진흥원(2019)에서 진행한 파일럿 테스트 결과 중 A지역(대도시)과 비교하고자 한다.

이는 창업생태계의 지역적 특징을 비교 분석하여 향후 지역 내 성공적인 유니콘 기업의 탄생이 가능한 창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초석 마련과 더불어 효과적인 창업 지원 방향 설정을 위한 기초가 될 것이다.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1장은 서론으로 연구의 배경, 목적, 방법, 구성을 설명하여 연구 전체의 내용에 대해 서술한다.

제 2장은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로 창업과 기술 창업, 창업생태계와 국내 창업생태계 현황, 선행연구를 통해 연구의 기초가 되는 키워드의 이론적 배경을 알아본다.

제 3장은 부산지역 창업생태계 지표 측정 모형으로 지표, 하위요인, 세부요인을 이용한 연구모형 설계와 자료처리 및 분석방법에 대해 제시한다. 더불어 부산지역 조사대상과 조사방법에 대해 제시한다.

제 4장은 부산지역의 특징 분석으로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주요 측정지표에 대한 부산지역 창업생태계 인식 현황을 분석하고, 파일럿 테스트 데이터와 부산지역 창업생태계를 비교하고자 한다.

제 5장은 결론으로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연구의 시사점 도출 및 연구의 한계점과 향후 연구 방향에 대해 제시한다.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1. 창업과 기술창업

1) 창업에 대한 정의

오스트리아 출신의 미국 경제학자인 Schumpeter(1934)는 창업이란 하나의 과정이며, 기업가는 창업의 과정을 통해 새로운 자원을 재결합하거나 상업적인 방법으로 현상유지 탈피를 목표로 하는 혁신가로 정의하였다. 티몬스(Timmons, 1990)은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부터 가치 있는 어떤 것을 이루어내는 인간적이고 창조적인 행동으로 정의하였으며, Teemu(2013)는 창업을 국가 경제나 국부의 발전에 따라 발생하는 사회적 경쟁 속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요소이며, 이러한 과정에서 개인적 수준에서의 고용을 창출하기 위해 중요한 의미를 갖는 활동이라고 정의하였다. <표 2-1>과 같이 창업의 정의는 정립되지 않았으나 창업이란 일반적으로 분명한 모기업 없이 새롭게 형성된 기업으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이요행 외, 2012).

우리나라에서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생겨난 스타트업(Start-up)이라는 용어를 보편적으로 사용한다. 해당 정의는 기업 설립을 창업이라 보지만, 현재는 기업 설립 이전 단계인 팀 빌딩, 창업 아이템 아이디어 발굴 및 고도화 단계 등의 창업 준비 단계 또한 창업으로 보고 있다. 이는 창업 이전 단계인 창업자를 예비창업자로 분류하고 국가적 차원의 창업지원을 진행 중인 현 정부의 창업지원 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표 2-1>창업에 대한 정의

연구자	정의
Schumpeter(1934)	창업은 과정이며, 창업가는 과정을 통해 자원의 재결합과 상업적인 방법으로 현상유지 탈피를 목표로 하는 혁신가
Drucker(1985)	기존 자원을 투입하여 새로운 부를 창출하는 혁신적인 행위
Timmons(1990)	인간적이고 창조적인 행동을 통해 아무 것도 아닌 무로부터 가치 있는 유를 이루어 내는 것
박준엽(1991)	인간이 사업적 아이디어를 가지고 자본등을 동원하여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 및 제공하는 시스템
김종재(1993)	하나의 시스템을 구축하여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 판매하는 일
김재식(1997)	자본, 사업 아이디어, 종업원, 시설 등을 구비하여 일정한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정대용(1997)	이전에 없던 분야에서 현재 추진 중인 사업 활동을 창시한 기량
백형기(1999)	새로운 사업의 기초를 세우는 것으로서 새로운 아이디어와 사업목표와 생산적 요소를 적절히 결합하여 창업 활동에 적합한 기업을 설립하는 것
Dollinger(2002)	창의성과 혁신성을 통해 재화의 수집 및 이윤 창출의 기회를 추구하여 경제적 조직체를 설립
Michael(2009)	새로운 생산품을 창조하기 위한 적극적이고 역동적인 작업
중소기업창업지원법 (2012)	기존에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기업을 설립하는 것
Cristina, Diana(2013)	이미 존재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리빌딩하여 새로운 생산품이나 서비스를 통해 새로운 결과를 산출하는 활동
Teemu(2013)	국가의 발전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경쟁 속에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요소로, 개인적 수준의 고용을 창출하기 위해 중요한 의미를 갖는 활동
김성훈(2016)	파괴적 혁신을 이루는 전 범위적 행위로, 기업의 설립과 설립이전의 팀 구성과 정보검색 등의 준비 단계를 포함

출처 : 김성훈, 2016

2) 기술 창업

기술창업에 대한 개념은 그동안 많은 학자와 연구자 등이 정의해 왔다. 박상용(2003)은 미국 ‘중소기업투자법’을 인용하여 높은 위험성이 존재하나 성공 시 높은 기대수익이 발생하는 아이디어나 신기술을 자체적으로 개발

및 제작하여 판매 활동을 진행하는 신생기업을 기술창업이라 설명했고, 윤보현(2007)은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을 함양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신기술을 연구 및 개발하여, 이를 사업화하는 기업으로 고찰했다.

기술창업은 여러 창업 유형 중에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기술과 기업가정신을 함양하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기술 집약형 기업을 특정한 것이다(한국창업보육협회, 2015). 이 외에도 <표 2-2>는 기술창업에 대한 다양한 국내외 정의를 정리한 것이다.

<표 2-2>기술창업의 다양한 정의

연구자	정의
Jones-Evans(1995)	신생기술벤처의 설립
Jelinek(1996)	기술변화를 따라잡기 위해서 명료하지 않는 자료들을 해석하는 공동노력, 기술노력을 지속하기 위한 공동이해, 일관되며 조정된 일련의 시도들을 통칭
김영배, 하성욱(2000)	신규로 창업한 기업, 벤처캐피탈에 의해 투자를 받은 기업, 신기술 기반 기업(NTBF)
Maula(2001)	생명공학, 의과과학, IT, 컴퓨터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등 산업의 6년이하 기업
삼성경제연구소(2004)	혁신기술을 창출하는 기업의 창업 벤처, 기술혁신, 혁신선도, 기술집약형 기업의 창업을 포괄
Liu et al.(2005)	신기술의 사업기회를 활용하기 위해서 기업의 경영자원과 조직구조에 의존할 수 qkTdp 없는 창업가의 길
김대호, 김홍(2009)	혁신 기술을 창출하는 기업군, 이노비즈 기업, 벤처기업처럼 부가 가치나 고용의 창출이 큰 기술집약형 창업 기업
권미영, 정해주(2012)	소수 인력이 혁신적 기술과 사업동기를 갖고 설립한 기업, R&D중심 또는 신기술지식, 지식활용에 중점 두는 기업, 신기술, 신제품, 신생산방식 도입과 신 시장 개척 통해 수익, 성장 목적달성 기업
김용정 외(2014)	혁신기술과 지식을 창출하는 기업의 창업
한국창업보육협회(2015)	혁신기술 및 기업가정신을 바탕으로 기존에 없는 새로운 시장을 창조하는 기술집약형 창업 벤처창업, 일반창업과 구별

출처 : KISTEP, 2017; 정길호, 2017

<표 2-3>은 기술창업에 대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입각하여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구분하고 세부 산업 분류에 부합되는 기업을 기술 및 일반 창업으로 분류한 것이다. 즉 기술창업은 기술 및 시장의 기회(opportunity driven)와 가능성을 발견하고 기술집약적 산업 영역에서 기술 중심의 제품, 서비스,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다(최관섭, 2018).

<표 2-3>산업 분류 체계에 따른 기술창업과 일반 창업의 유형화

구분		업종	혁신형 창업
기술 창업	제조업	첨단기술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항공기·우주선 및 부품제조업	혁신형 제조업
		고기술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의약품 제외), 전기장비, 기타 기계 및 장비, 자동차 및 트레일러, 철도 및 기타운송장비(항공기 제외)	
		중기술 코크스·연탄 및 석유정제품,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비금속광물제품, 1차금속, 금속가공제품(기계 및 가구 제외), 선박 및 보트건조업	非혁신형 제조업
		저기술 식료품, 음료, 담배, 섬유제품(의복 제외), 의복·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가죽·가방 및 신발, 목재 및 나무제품(가구 제외),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가구, 기타제품 제조업	
	지식 서비스업	출판, 영상, 정보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혁신형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일반 창업	생계형 창업	도매 및 소매업	非혁신형 서비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기타 서비스업 및 건설업	일반 서비스업	기타
		건설업 등	

출처 : 김진수 외,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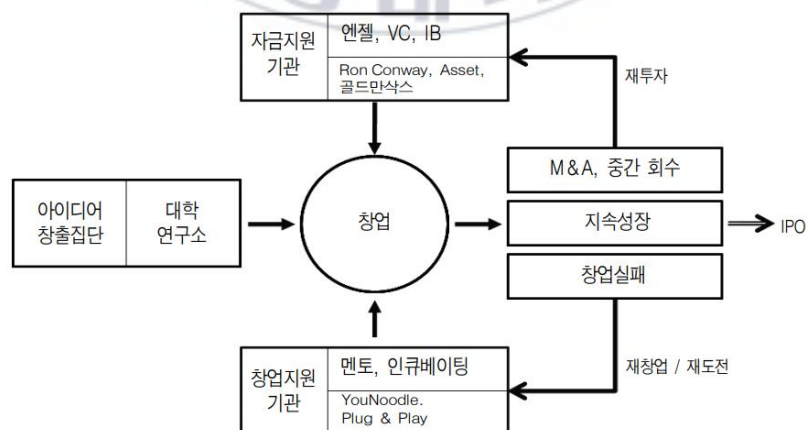
2. 창업생태계

1) 창업생태계의 정의

생태계란 용어는 1935년 영국의 탠슬리(Author G.Tansley)가 생물적 요소와 무생물적 요소를 분리하지 않고 사고하는 이론이다. 탠슬리는 생태계를 하나의 체계로 생물공동체와 주변 환경이 상호작용하는 물리적 공간으로 보았으며, 다양한 요소들이 체계적으로 조직되어 있고 평행상태를 이루고 있다고 보았다. 또한 다양한 구성요소들을 개별적으로 분석하여 기계적 결합이 아닌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 간의 체계적 상호관계에 중점을 둔 이론이다.

자연 생태계 이론을 창업과 연계하여 창업자, 창업지원 유관기관, 자금 지원기관 등이 유기적으로 상호작용하여 지속적으로 창업활동이 이루어져 창업이 활성화되는 환경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박동호,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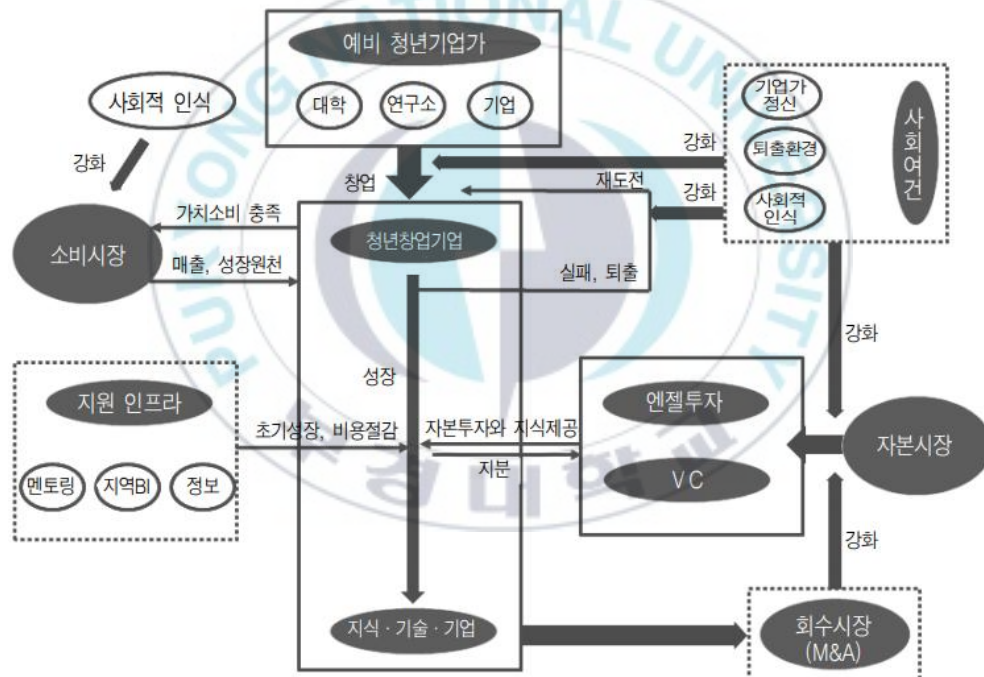
<그림 2-1>창업생태계의 구조



출처 : 관계부처 합동, 청년창업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 방안, 산업연구원, 2011

양현봉 외(2011)은 청년창업생태계의 구성체계를 <그림 2-2>와 같이 정의하였다. 청년창업생태계의 구성요소는 예비 청년 창업자, 청년 창업 기업, 지식과 기술기업, 엔젤투자자와 벤처캐피탈이며, 주요 환경에는 기업가 정신, 퇴출환경, 사회적 인식과 회수시장, M&A, 멘토링, 지역Bi, 정보 등이 포함되고, 기타 환경에는 자본시장과 소비시장 등이 포함된다. 청년창업생태계에서는 기업가를 핵심 요소로 포함하고 회수시장(M&A)을 주요한 환경으로 포함시킨다.

<그림 2-2>청년창업생태계의 구성 체계



출처 : 양현봉, 박종복, 청년창업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 방안, 산업연구원, 2011
 자주 : 실선 상자는 구성요소, 점선 상자는 주요 환경, 나머지는 기타 환경.

위와 같이 창업생태계는 주인의식과 개체성(Identity)을 가진 자발적 주체이며, 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유기체로서 생존과 이익창출에 대한 욕구와 활발한 성장, 진화, 융합 그리고 분화가 이루어지는 소위 ‘자기증식

시스템(self-proliferation)’이어야 한다(정대용 외, 1999). 또한 시장 원리와 적자생존에 대한 위험 대비와 철저한 성과 배분제도를 시행하여야 하며, 변화에 대한 지향과 지식공유, 실패에 대한 인정 등의 창업문화가 인식되도록 모든 이들이 네트워크적인 상호작용으로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아이젠버그(2011)는 <표 2-4>와 같이 창업생태계는 시장, 인적자본, 지원, 문화, 금융, 정책의 6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6대 영역을 다시 50개의 주요 구성요소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표 2-4>창업생태계 세부 영역 및 구성 요소

구분		구분	
초기 고객들	개념 증명을 위한 얼리어답터	리더쉽	절대적 지원
	생산화 전문가 등		사회적 정당성
네트 워크	창업가 네트워크		지지자에 대한 개방
	디아스포라 네트워크		창업전략 등
	다국적 기업	정부	각종 투자, 지원제도
노동	숙련 및 비숙련노동자		금융지원
	연속창업기업가 등		법적인센티브(세제지원 등)
교육 제도	일반 학위(전문, 학술)		연구소
	특화된 창업훈련 등		벤처친화적 법률
하부 구조	텔레콤		지채권 등
	수송과 물류	금융 자본	소액대출(마이크로론)
	에너지		엔젤투자자
	창업보육, 클러스터 등		벤처자본기금 등
지원 전문기구	법률	성공 스토리	가시적 성공
	회계, 투자은행		국제적 명성 등
	기술전문가, 자문가	사회 규범	위험 실수, 실패용인
비정부 제도	비영리기구의 창업촉진		혁신, 창조성, 실험
	사업계획서 경진대회		창업가의 사회적 지위등
	창업가 친화적 기구들		

출처 : Isenberg, 2017; 김성훈,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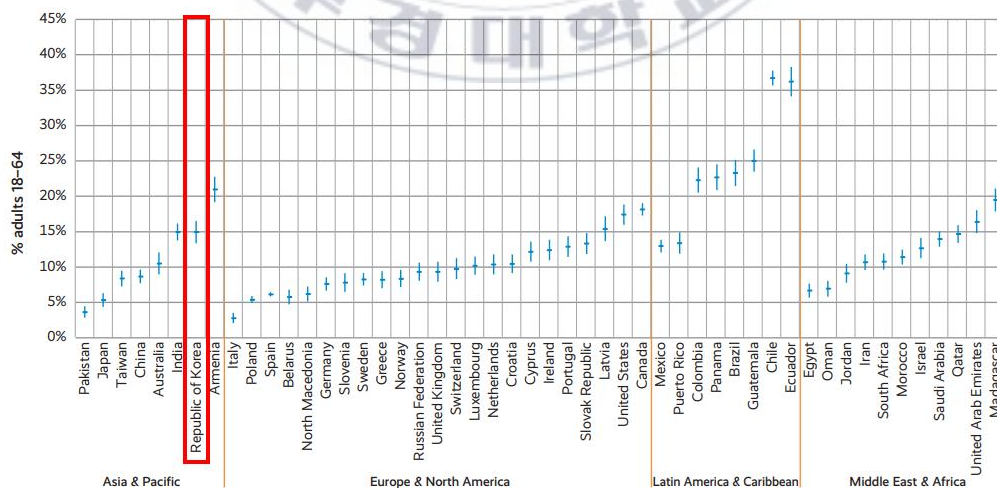
한정화(2011)은 창업생태계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 신규 창업에 대한 제도적, 재정적 지원이 중요하며, 사업 실패를 경험한 창업가들이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았다. 즉, 실패에 대한 사회적 관용적 문화와 재기를 위한 지원을 시스템화하여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며, 성공한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및 지원과 동시에 교육에 대한 기회를 제공하여 상호 보완하는 것이 중요하다.

2) 국내 창업생태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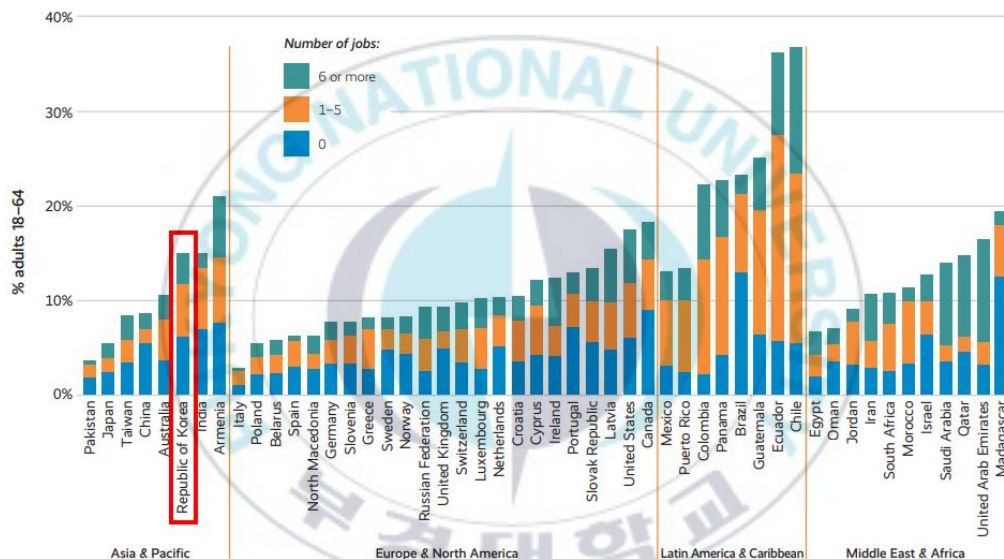
김성민(2016)은 글로벌기업가정신모니터(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 : GEM)(2013) 보고서에 의하여 한국의 초기창업비율(Total early-stage Entrepreneurial Activity rate : TEA)을 2012년 기준 OECD 국가 최고 수준 대비 1/4 수준인 6.6%로 보았다. 하지만 최근 글로벌기업가정신모니터(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 : GEM)(2019)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의 초기창업비율은 15% 수준으로 상승하였으며, 이는 아시아·태평양지역 내부 2위에 해당되는 수준이다(<그림 2-3> 참조).

<그림 2-3> 50개 경제국에서 총 초기 기업가 활동(TEA) 비율 (성인%)



출처 : 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 GEM, 2019

또한 해당 GEM(2019) 보고서 내부 5년간 0명, 1~5명, 6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성장 단계의 창업 기업 조사(<그림 2-4> 참조)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아시아·태평양 국가 중 1위 아르메니아(22%) 인도(15%)와 함께 공동 2위(15%)를 기록하였다. 공동 2위인 인도(15%)의 경우 0명 고용(7%), 1~5명 고용(6%), 6명 이상 고용(2%)이며, 우리나라는 0명 고용(6%), 1~5명 고용(5%), 6명 이상 고용(4%)로 공동 2위인 인도와 질적인 차이를 보인다. <그림 2-4> 5년 이내 0, 1-5, 6명 이상 고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초기 창업 기업



출처 : 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 GEM, 2019

지속적인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우리나라 정부는 많은 예산을 창업에 대한 지원으로 사용하고 있다. 2017년 창업 관련 재정자금은 중앙정부 2조 7,572억 원, 17개 지방정부 688억 원 으로, 총 2조 8,260억 원 (추경예산, 신용보증,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 제외)으로 조사 되었다(양현봉, 2018). <표1-5>의 지원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 구분하여 보면, 중앙정부는 정책 자금 융자 2조 790억 원, 행사·네트워크 31억 원, 판로·마케팅·해외진출 147억 원, R&D 2,157억 원, 사업화 2,959억 원, 창업 교육 631억 원, 시설·공간 484억 원,

멘토링·컨설팅 373억 원 으로 조사 되었으며, 지방정부의 경우 행사·네트워크 6억 원, 판로·마케팅·해외진출 15억 원, 사업화 41억 원, 창업 교육 15억 원, 시설·공간 276억 원, 멘토링·컨설팅 3억 원이며, R&D, 정책자금 용자는 0원으로 조사되었다(<표 2-5>참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상당한 규모의 창업 지원을 투입하고 있으며, 이 중 정책 자금 용자의 비중이 전체의 73.6%를 차지하고 있다.

<표 2-5>창업지원 사업별 창업자금 규모(2017년 3월 기준)

(단위 : 억원)

	중앙정부	지방정부	합계
정책 자금 용자	20,790.0	-	20,790.0
행사·네트워크	31.0	6.8	27.8
판로·마케팅·해외진출	147.0	15.3	162.3
R&D	2,157.0	-	2,157.0
사업화	2,959.0	41.0	3,000.0
창업 교육	631.0	15.3	646.3
시설·공간	484.0	276.2	760.2
멘토링·컨설팅	373.0	3.0	376.0
기타	-	330.9	330.9
합계	27,575.0	688.5	28,260.5

출처 : 창업정책의 추진 실태와 효율화 방안, 양현봉, 2018

중앙정부는 창업교육, 시설·공간, 멘토링·컨설팅, 사업화, 정책자금, R&D, 판로·해외진출, 행사·네트워크 등의 창업 지원 자금을 효율적으로 배포하기 위하여 <표 2-6>와 같이 다양한 방면의 창업지원 사업을 운영 중에 있다.

<표 2-6>2016년 중앙부처 창업지원

사업명		
창업 교육	중소기업청	청소년 비즈쿨, 창업아카데미, 창업대학원, 장애인 맞춤형 창업교육, 차세대 여성 CEO 양성교육, 실전창업스쿨, 시니어기술창업스쿨
	특허청	IP 창조 Zone
	교육부	대학창업교육체계구축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창업지원
시설· 공간	중소기업청	시니어 기술창업센터, 크리에이티브팩토리 지원, 창업보육센터, 시제품 제작터,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미래창조과학부	K-Global 빅데이터 스타트업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게임벤처 3.0
멘토 링· 컨설팅	미래창조과학부	K-Global 기업가정신 및 인큐베이팅 인터쉽, 6개월 챌린지, AC 연계 지원사업, 미래창조과학부 K-Global 멘토링
	특허청	선행기술 조사, 국민행복기술 구현사업, 지식재산 재능나눔, 투자유치 인큐베이팅, 국내·해외 지식재산 권리화
사업 화	중소기업청	창업선도대학, 청년창업사관학교, 창업맞춤형사업화, 창업도약패키지, 선도벤처, 민관공동 창업자 발굴·육성 사업, 창업인턴제, 패키지형 재도전 지원, 스마트벤처창업학교, 스마트창작터, 장애인 창업아이템 경진대회, 여성 창업 경진대회
	미래창조과학부	K-Global Re-Startup, K-Global AC 육성, K-GlobalStartup 스마트 디바이스, K-Global DB-Stars, K-Global클라우드 기반 SW 개발 환경 지원, K-Global IoT 챌린지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문화체육관광부	창업발전소 스사트업 지원, 창조관광사업 공모전
정책 자금	중소기업청	창업기업지원자금(일반자금, 청년전용자금), 재창업자금, 기술창업기업 보증지원(기술보증기금)
	금융위원회	창업기업 보증(신용보증기금), 퍼스트뱅크형 창업기업 보증(신용보증기금)
R&D	중소기업청	TIPS 프로그램(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 지원), 창업성장기술개발(창업기업과제, 1인창조기업과제), 재창업 아이디어 신제품 개발 사업
	미래창조과학부	K-Global ICT유망기술개발지원사업, 투자연계형 기업성장 R&D 지원사업(구 산학연지역연계중소기업 신사업 창출지원)

관료· 해외 진출	중소기업청	글로벌 창업기업 발굴·육성 프로그램, 1인 창조기업 마케팅 지원
	미래창조과학부	K-Global 해외진출 사업(K-Global Go-To-Market Practice, 데모데이, 컨설팅, 해외 데모데이)
행사· 네트 워크	중소기업청	창조경제 벤처창업대전, 대한민국 창업리그
	특허청	대한민국 지식재산 대전
기타	중소기업청	상생서포터즈 청년창업 프로그램, SK 청년비상(飛上) 프로그램, 무한상상 국민창업 프로젝트, 대학 기업가센터, 엔젤투자매칭펀드, 청년창업펀드, 예비창업자 사전보증(기술보증기금), 시니어창업지원(지역신보)
	미래창조과학부	우주기술 기반 벤처창업 지원 및 기업역량 강화(STAR-Exploration)사업, 연구개발특구육성(R&D)-이노폴리스캠퍼스
	특허청	지식재산기반 차세대 영재기업인 육성사업, 생활발명코리아

출처 : 중소기업청, 2016

지방정부 또한 지역의 핵심역량 강화와 지역기반 창업 기업 육성을 위하여 창업 지원 사업을 운영 중에 있다. <표 2-7>와 같이 중소벤처기업부의 ‘2017 창업지원사업’을 보면 17개 시·도별에서 추진한 창업 관련 지원사업은 91개이며, 서울시는 아스피린센터 등 6개 사업, 부산시는 부산 대표 창업기업 지원 등 7개 사업, 대구시는 2030청년창업 프로젝트 등 15개 사업, 광주시는 스마트모바일앱개발지원센터 등 2개 사업, 대전시는 맞춤형 청년창업생태계 조성 등 8개 사업, 울산시는 청년CEO 육성사업 등 5개 사업을 추진하였다. 경기도는 창업기업 글로벌 사업화 등 12개 사업, 강원도는 우수 스타트업 일자리 지원사업 등 10개 사업, 충청북도는 청년창업 아이템 경진대회 등 3개 사업, 전라남도는 창업기업 데스벨리 극복지원 등 3개 사업, 경상북도는 청년CEO 육성 등 4개 사업, 경상남도는 창업기업 신규인력 보조금 지원 등 2개 사업, 제주도는 중소기업 창업프로그램 운영 등 3개 사업, 세종시는 창업보육 지원사업 등 2개 사업을 추진했다.

<표 2-7>2016년 시·도별 창업지원

유형	사업명	시·도
창업교육	대학 창업동아리 지원	부산
	고교창업 인재육성 특성화사업, 장애인창업교육활성화 지원	대전
	지피지기창업성공사업	인천
	창업베이스캠프 운영	경기
	창업동아리 활성화, 대학생 창업캠프 및 창업경진대회	강원
	우수 창업동아리 지원	충북
	4050 행복창업프로젝트	전북
	대학벤처창업동아리 육성	전남
	중소기업 창업프로그램 운영	제주
시설·공간	창업카페 운영, 창업 허브, 디지털대장간 운영, 글로벌 창업센터, 엠비즈니스센터 운영	서울
	센텀기술창업타운 조성 운영, 창업 카페 지원	부산
	청년 ICT창업성장센터 운영, 의료관광창업지원센터 운영, 섬유·패션디자인 BI 지원, 북구 창업보육센터 운영, 여성회관 창업보육센터 운영	대구
	스마트모바일앱개발지원센터	광주
	여성창업지원시설 운영	대전
	여성 창업지원, 벤처창업센터 운영, 경기문화창조 허브 운영	경기
	푸른돌 청년상인 육성	전남
	경북 북구권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	경북
	창업보육센터 운영	경남
	창업보육 지원사업	세종
	부산 대표 창업기업 지원	부산
	창업기업 글로벌 사업화	경기
사업화	창업꿈나무 사업화	전북
	청년 CEO 육성	경북
판로	창업기업 오프라인 판매장 구축	부산
	청년 해외역직구 창업	경기
	작은 브랜드 100개 찾기	충만
	청년 CEO몰 사업, 청년창업제품 판로 개척	경북
행사	대구창조경제리더스 포럼, 글로벌 이노베이터 페스타(GIF)	대구
	대덕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경쟁력강화사업	대전
	청년창업 아이템 경진대회	충북
패키지형	아스피린센터	서울
	창업성장지원센터	부산
	청년창업 지원사업, 2030 청년창업 프로젝트	대구
	청년예비창업가 발굴·육성	광주
	맞춤형 청년창업생태계 조성	대전
	청년CEO 육성사업, 제조업창업공간특화팩토리 운영사업, 오프라인매장특화스트리트 운영 사업, 지식기술창업 지원사업, 청년스타기업육성사업	울산
	청년창업 베이스캠프 구축 운영, 청년창업 프로젝트	강원
	창업 우수기업 발굴 육성	충북
	중장년 재도약 창업프로그램, 청년 CEO 프로젝트	충남

패 키 지 형	창업 프로젝트 추진, 기술이전 창업 지원, 광고 경기문화창조 허브운영, 대학생 융합기술 창업 지원, 북구 경기문화창업 허브운영	경기
	창업기업 데스밸리 극복 지원	전남
	창업기업 양성 프로젝트(지식서비스), 창업기업 양성 프로젝트(기술기반)	전북
	향토자원 활용형 창업지원	제주
기 타	창업보육 경쟁력강화 사업	대전
	우수 스타트업 일자리 지원사업, 청년창업프로젝트 사후관리	강원
	충남형 예비사회적기업 육성	충남
	창업기업 신규인력 보조금 지원	경남
컨 설 팅	기업경영자문단, C-Lab 액셀러레이팅	대구

출처 : 중소기업청, 2016

3. 창업생태계 관련 선행연구

창업생태계에 관한 기존 연구에서 다양한 요소를 활용하여 지역 창업생태계를 측정하고자 하였다.

박동호(2015)은 창업생태계적 관점으로 부산시의 창업지원에 대한 개선 방안 도출을 위해 창업생태계의 구성 및 모형 도출과 창업의 결정 및 성공 요인을 창업지원 체계, 창업문화, 인재양성, 자금지원의 4개의 요소를 활용하여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양현봉·박종복(2011)은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공급 촉진이 가능하도록 청년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청년 전용 창업 정책자금 및 투자전문펀드, 엔젤투자 활성화에 대한 필요성과 청년 창업 지원 연계 및 강화, 창업 사후 관리 기능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김성훈(2016)은 일반인, 예비창업자, 창업자를 대상으로 2015년과 2016년의 창업 동기, 창업 의도에 미치는 영향, 창업 교육 등에 따른 창업생태계 인식과 국내 창업생태계 현황 비교 분석을 통해 창업에 대한 ‘부모의 생각’이 창업을

결정하는데 큰 요인으로 작용되며, 향후 창업 지원 정책 및 사업 방향을 부모에 대한 창업 교육으로 제시하였다.

경기연구원(2016)은 기존 파크 조성 및 입주 이후 해당 공간의 기업들에게 R&D, 사업화 자금과 네트워킹, 컨설팅을 지원하는 형태로 구성되었으며, 이후 입지선정 요인을 통한 다양한 분석을 통해 효율적인 스타트업 지원전략 수립 방안을 도출하였다.

김재욱(2013)은 창업가정신과 창업가의 개인적 특성 간의 상관관계를 통해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또한 연구를 통해 시니어층 중에서도 창업가 정신이 높은 사람이 청년보다 창업을 시도하며, 이는 청년과 시니어의 ‘세대의 차이’가 현재 창업생태계의 균형을 이루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2-8>선행 연구 목록

연구자(연도)	조사대상	연구대상지역	연구내용
박동호 (2015)	예비창업자, 창업자, 정책수립 기관, 정책지원 기관	부산	부산시의 창업지원에 대한 개선방안 도출
양현복·박종복 (2011)	청년 창업자	전국	청년창업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방안 모색
김성훈 (2016)	예비창업자, 창업자, 투자자, 학생, 창업 관련 기관	전국	2015년 2016년 비교를 통한 국내 창업생태계 인식 변화 연구
경기연구원 (2016)	경기북부지역 창업보육센터, 벤처센터, 벤처집적 시설 입주 181개 업체	경기북부	경기북부지역 창업 기업 지원 및 보육 생태계 조성 방안
김재욱 (2013)	창업스쿨의 창업전문과정 21기 수강생	서울특별시	창업가정신과 개인적 특성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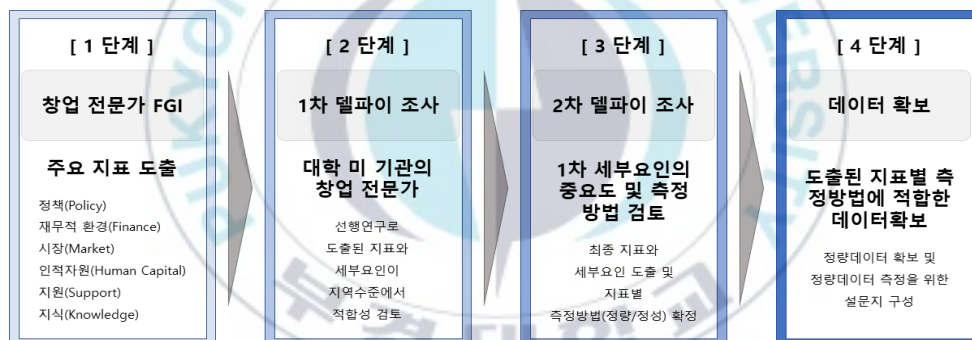
Ⅲ. 부산 창업생태계 지표 측정 모형

1. 연구모형 설계

1) 측정 지표 설계

지역수준의 창업생태계 측정을 위해 창업진흥원(2019)은 기존 양적데이터와 질적 데이터를 교차시키는 혼합연구방법을 활용하기 위하여 총 4단계의 과정을 통해 지표를 도출하였다.

<그림 3-1> 지역창업생태계 활성화 정도 지표 도출 과정



출처 : 지역 창업생태계 활성화 관련 분석 모델·지표 개발, 창업진흥원, 2019

도출 과정은 다음과 같다.

1단계 : 해외 창업생태계 지표에 대한 연구 및 창업 전문가 FGI를 통한 지역수준의 창업생태계 지표 기초 설계

2단계 : 델파이 조사를 통한 지표 세부요인 적합성 검토로 불필요 지표 제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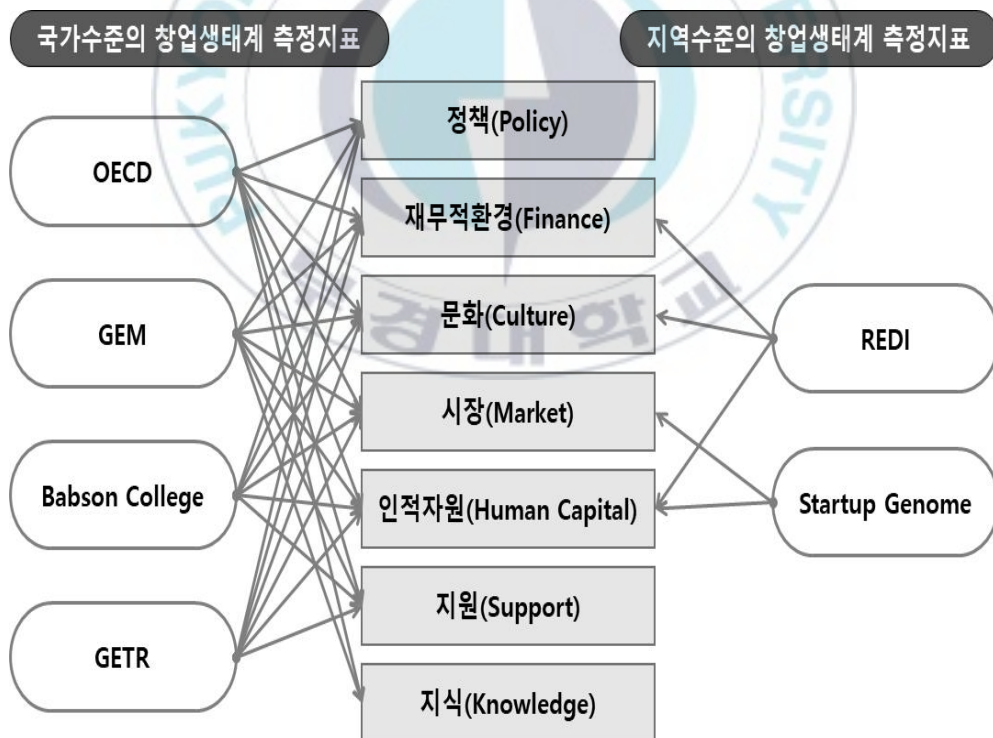
3단계 : 세부요인에 대한 중요도 및 측정방법 도출을 위하여 2차 델파이 조사

4단계 : 최종 지표에 적합한 정량데이터 확보 및 정성데이터 조사를 위한 설문지 구성

2) 단계별 지표 설계 내용

1단계의 경우 지역 기반 창업생태계 측정 지표 설계를 위해 OECD, GEM, Babson College, GETR을 통해 국가 수준의 창업생태계 측정지표와 REDI, Startup Genome를 통해 지역 수준의 창업생태계 측정지표 선행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선행연구 측정지표를 토대로 국내 창업생태계의 이해도가 높은 대학 및 기관의 전문가들의 FGI를 통하여 공통 요소 6개와 지식(Knowledge)요소를 추가하여 총 7개의 창업생태계 주요지표를 도출하였다(<그림 3-2>, <표 3-1> 참조).

<그림 3-2> 선행연구와 FGI로 도출된 창업생태계 측정지표



출처 : 지역 창업생태계 활성화 관련 분석 모델·지표 개발, 창업진흥원, 2019

<표 3-1>선행연구·FGI를 통한 1차적 도출 지표

주요지표	하위요인	세부요인	출처
정책 (Policy)	지역정책 및 규제	10개	GEM, Babson College, OECD
	세금	4개	GEM, Babson College, GETR
	행정처리	3개	OECD, GEM
재무적 환경 (Finance)	투자여부	5개	Babson College, OECD, GETR
	자금조달 가능성	6개	GEM, GETR
	자금 충분도	3개	GEM
	자본시장	2개	GEM
	제도	4개	Babson College, OECD, REDI
	초기단계 투자	1개	Startup Genome
문화 (Culture)	위험/실패에 대한 태도	4개	Babson College, GEM, OECD, European Commission, GETR
	창업가의 사회적 지위	2개	Babson College, OECD, GEM, REDI
	창업의지	2개	GEM, GETR
	우호적인 창업문화	5개	Babson College, GEM
	관료주의	3개	GETR
시장 (Market)	시장의 접근성	9개	OECD, GEM, GETR
	네트워크	1개	Babson College
	다국적기업	1개	Babson College
	생존	1개	GETR
	해외진출 및 판매	3개	Startup Genome, GETR
인적자원 (Human Capital)	교육	9개	OECD, GEM, GETR, REDI
	창업가	5개	Babson College, REDI, Startup Genome
	기술자	1개	Startup Genome
지원 (Support)	기반시설	6개	Babson College, GEM
	보육시설	4개	Babson College, GEM, GETR
	자문	1개	Babson College
	창업행사	1개	Babson College
	창업관련 협회	1개	Babson College
지식 (Knowledge)	기술	3개	OECD, GEM
	협력	3개	OECD, GEM
	기술확보	3개	GEM
	기반환경	1개	GEM

출처 : 창업진흥원, 2019, 재구성

2단계의 경우 창업 전문가의 반복적인 의견을 수집하는 델파이조사 기법을 활용하여 선행연구를 토대로 도출된 지표에 대한 적합성을 판단하였다.

조사 응답의 각 문항에 대한 전문가 패널의 응답을 통계 분석하여 내용타당도 비율(Content Validity Ratio: CVR), 평균(Mean), 표준편차(Standard Deviation: SD), 사분범위(Inter-quartile Range: IQR)를 산출하여 2차 조사를 위한 항목을 구성하였으며, 내용타당도 비율(CVR)은 LAwshe(1975)의 연구에 기초하여 0.05 수준에서 패널 수에 따른 최소값 이상의 CRV값을 가진 항목들만이 내용타당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타당도 비율(CVR)은 중요도에 대한 일치된 의견을 양화(Quantifying Consensus)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공식에 의해 도출된다.

$$CVR = \frac{Ne - \frac{N}{2}}{\frac{N}{2}}$$

※ N=응답사례 수, Ne=적정(3점, 4점, 5점)이라고 응답한 패널의 빈도수

<표 3-2>델파이조사를 통한 1차적 도출 지표

주요지표	하위요인	초기 지표 도출	1차 델파이조사
정책 (Policy)	지역정책 및 규제	10개	6개
	세금	4개	1개
	행정처리	3개	1개
재무적 환경 (Finance)	투자여부	5개	3개
	자금조달 가능성	6개	4개
	자금 충분도	3개	2개
	자본시장	2개	2개
	제도	4개	2개
	초기단계 투자	1개	1개
	위험/실패에 대한 태도	4개	2개
문화 (Culture)	창업가의 사회적 지위	2개	2개
	창업의지	2개	1개
	우호적인 창업문화	5개	5개
	관료주의	3개	0개

시장(Market)	시장의 접근성	9개	7개
	네트워크	1개	1개
	타국적기업	1개	0개
	생존	1개	1개
	해외진출 및 판매	3개	2개
인적자원 (Human Capital)	교육	9개	6개
	창업가	5개	2개
	기술자	1개	1개
지원 (Support)	기반시설	6개	5개
	보육시설	4개	4개
	자문	1개	1개
	창업행사	1개	1개
	창업관련 협회	1개	1개
지식 (Knowledge)	기술	3개	3개
	협력	3개	3개
	기술확보	3개	2개
	기반환경	1개	1개

출처 : 창업진흥원, 2019, 재구성

3단계의 경우 1차 델파이 조사의 데이터 중 내용타당도 비율이 0.05 수준에서 패널 수에 따른 최소값 이상의 CRV값을 가진 항목들만 내용타당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지역 창업생태계 활성화 지표를 도출하였다.

<표 3-3>델파이조사를 통한 2차적 도출 지표

주요지표	하위요인	1차 델파이조사	2차 델파이조사
정책 (Policy)	지역정책 및 규제	6개	3개
	세금	1개	0개
	행정처리	1개	1개
재무적 환경 (Finance)	투자여부	3개	2개
	자금조달 가능성	4개	3개
	자금 충분도	2개	0개
	차본시장	2개	0개
	제도	2개	0개
	초기단계 투자	1개	1개
문화 (Culture)	위험/실패에 대한 태도	2개	1개
	창업가의 사회적 지위	2개	1개
	창업의지	1개	1개
	우호적인 창업문화	5개	2개

시장(Market)	시장의 접근성	7개	2개
	네트워크	1개	1개
	생존	1개	1개
	해외진출 및 판매	2개	0개
인적자원 (Human Capital)	교육	6개	4개
	창업자	2개	0개
	기술자	1개	1개
지원 (Support)	카반시설	5개	0개
	보육시설	4개	2개
	자문	1개	1개
	창업행사	1개	1개
지식 (Knowledge)	창업관련 협회	1개	0개
	기술	3개	2개
	협력	3개	3개
	기술확보	2개	2개
	기반환경	1개	1개

출처 : 창업진흥원, 2019, 재구성

4단계의 경우 도출된 지표의 배분작업을 통해 정량지표와 정성지표를 도출(<표 3-4> 참조)하고, 정량지표 내부 세부요인별 측정 방법에 대한 데이터 확보를 위하여 통계청의 『기업생멸행정통계』와 『전국사업체조사』, 중소벤처기업부(벤처기업협회)의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대학알리미의 『창업교육지원현황(대학)』 등을 이용하였다(<그림 3-3> 참조).

<그림 3-3> 정량지표 측정 데이터

정책	재무적환경	문화	시장	인적자원	지원	지식
중간값 대체	중소벤처기업부 (2017)		통계청 (2017)	중소벤처기업부 (2017)	창업보육센터 네트워크 시스템 (2019)	통계청 (2015~2017)
	중간값 대체			(재)한국청년 기업가정신재단 (2018)	창업진흥원 (2019)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2015~2017)
	과학기술 정책연구원 (2016)			대학알리미 (2018)	통계청 (2015~2018)	중소벤처기업부 (2017)
	(재)한국청년 기업가정신재단 (2018)			통계청 (2015~2017)		특허청 (2017)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2015~2017)		

<표 3-4> 최종 도출된 정량, 정성 창업생태계 측정지표

지 표	하위요인	세부요인	정 량	정 성		
정책	지역정책 및 규제	①지방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 ②투자 및 지원제도 ③정부 창업지원 프로그램의 도움 정도	✓ 	✓ ✓		
	행정처리	①창업기업 설립 및 성장의 행정규정 용이성		✓		
재무 환경	투자여부	①지역 엔젤투자자로부터의 투자 유치 ②지역 벤처캐피탈로부터의 투자 유치	✓ ✓	 		
	자금조달 가능성	①지역 엔젤펀드를 통한 충분한 자금 조달 가능성 ②지역 벤처캐피탈로부터 충분한 자금 조달 가능성 ③정부지원금을 통한 창업자금 조달 용이성	✓ ✓ 	 ✓		
	자금충분도	①창업 시 충분한 정부지원금 보유	✓			
	초기단계투자	①지역 내 초기 창업단계 투자의 활발 정도	✓			
	문화	위험/실패 태도	①위험/실패에 대한 태도		✓	
사회적 지위		①지역 내 창업가에 대한 사회적 위치 인식		✓		
창업의지		①직업 전환 시 고용주 희망		✓		
우호적 문화		①개인적 성공에 대한 우호적인 문화 ②지역주민들의 창의성과 혁신성 보유	 ✓	 ✓		
		시장의 접근성	①지역 창업기업들의 국내시장 진출의 용이성 ②지역 창업기업들의 신규시장 진출의 용이성	 ✓	 ✓	
시장	네트워크	①지역 창업가 네트워크 형성		✓		
	설립 및 생존	①지역 창업기업의 생존율 ②지역신생기업의 비율	✓ ✓	 		
		인적 자원	교육	①지역의 창업교육 경험 유무 및 참여 횟수 ②창업경험 ③지역의 창업교육 정보 ④지역 소재 대학에서의 창업교육과정 개설	 ✓ ✓ ✓	✓
기술자	①지역 내 기술자의 고용 용이성			✓		
지원	보육시설			①지역의 창업지원 기관(창업보육센터, 창업선도대학) ②지역 창업관련 기관 접촉의 용이성 및 가능성	✓ 	 ✓
	자문			①지역 창업기업에게 필요한 법률, 회계, 기술 등 자문지원		✓
	창업행사	①지역 내 연간 창업 컨퍼런스, 대회 등 창업행사		✓		
지식	기술	①지역 창업기업을 위한 R&D 투자 ②지역 창업기업들의 신기술에 대한 접근 용이성	✓ 	 ✓		
		협력	①지역 창업기업에게 신기술, 과학, 지식의 효율적 이전 ②기업간 기술협력 ③대학/정부 및 국가·민간 연구기관 간 기술협력	 ✓ ✓	 ✓	
	기술확보		①지역 창업기업들의 신기술 확보할 재무적 능력 ②기술확보 용이성	 ✓	 ✓	
			기반환경	①아이디어 상업화가 가능한 지역의 기반 조성		✓

출처 : 창업진흥원, 2019, 재구성

2. 자료처리 및 분석방법

아래 같이 지표의 최소 측정치와 최대 측정치의 간격을 고려하여 측정 단위가 다른 각 지표의 범위를 통일한 간격(0~1)으로 변환하는 최소-최대 변환(min-max) 방법을 통해 데이터 전처리를 실시한다.

$$x_i = \frac{x - x_{\max}}{x_{\max} - x_{\min}}$$

x_i : 정규화된 측정항목, x : 측정항목 값, $x_{\min}$: 측정항목 최소값, $x_{\max}$: 측정항목 최대값

가중치의 경우 총 가중치 100을 기준으로 각각의 지표 내 하위지표의 가중치를 동일하게 부여하고, 하위지표 내 세부요인의 가중치도 각 하부요인의 가중치에 따라 동일하게 부여한다(<표 3-5> 참조).

<표 3-5> 지표별 가중치

가중치	지표	하위요인	가중치	지표	하위요인
14.29	정책	지역 정책 및 규제	14.29	시장	시장의접근성
		행정처리			네트워크
14.29	재무적 환경	투자여부			신설 및 생존
		자금조달가능성	14.29	인적 자원	교육
		자금충분도			기술자
		초기단계투자	14.29	지원	보육시설
14.29	문화	실패에 대한 태도			자문
		창업가의 사회적 지위			창업행사
		창업의지	14.29	지식	기술
		후오적인 창업문화			협력
					기술확보
					기반환경

세부요인, 하위요인, 지표에 대한 지수를 산출과 지역 창업생태계 종합지수 산출을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였다.

(1)‘세부요인 지수’는 각각의 세부요인 내 측정항목 정규화 값의 합으로 산출됨

- (2) ‘하위요인 지수’는 하위요인 내 세부요인들 지수와 가중치를 곱한 후, 각 세부요인들의 합으로 산출됨
- (3) ‘지표 지수’는 지표 내 하위요인과 가중치의 곱으로 산출됨
- (4) ‘지역 창업생태계 종합지수’는 하위요인 지수의 합으로 산출됨

$$S_i = \sum_{i=1}^n x_i \quad U_i = \sum_{i=1}^n w_i S_i$$

S_i : 세부요인 지수, x_i : 측정항목의 정규화 값 U_i : 하위요인 지수, w_i : 세부요인의 가중치

$$C_i = \sum_{i=1}^n W_i U_i \quad \text{종합지수} = \sum_{i=1}^n C_i$$

C_i : 지표지수, W_i : 하위요인의 가중치 C_i : 하위요인 지수

3. 부산지역 조사대상과 조사방법

부산지역 기술창업생태계 측정을 위해 부산광역시 소재 기술창업기업 개인 및 법인 사업자 대표로 대상을 한정하였다. 조사방법은 부산광역시 내 비영리 부산 스타트업 포럼인 파운더스 회원사를 대상으로 70개 기업에 방문하여 설문지를 요청하였다. 설문지는 자기보고식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정책, 재무, 문화, 시장, 인적 자원, 지원, 지식 총 7개의 지표 내부의 정성적 지표에 대한 측정을 시행하였다. 측정을 위한 자료의 수집은 2020년 5월 9일부터 2020년 6월 11일까지 5주간 실시하였다.

부산지역 기술창업생태계 측정을 위해 수집된 설문자료는 Microsoft Excel 1908버전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설문을 통해 수집된 데이터에 대한 자료의 통계와 자료처리 및 분석방법에 의거한 분석을 통해 정규화 값과 지수 값을 도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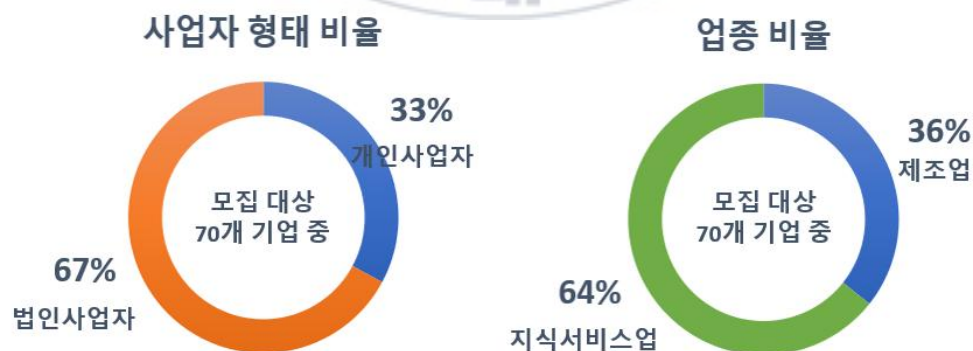
IV. 부산지역의 특징분석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를 대상으로 빈도 분석을 시행한 결과 도출된 일반적 특성은 <표 4-1>와 같다. 기업 형태의 경우 개인사업자 23명(32.9%), 법인사업자 47명(67.1%)으로 법인사업자가 더 많은 비율을 나타냈다. 사업 분야의 경우 제조업 25명(35.7%)으로 그중 ICT 8명(32.0%), 기계·금속 5명(20.0%), 전기·전자 5명(20.0%), 기타 4명(16.0%), 비금속 3명(12.0%) 순으로 나타났다. 서비스업의 경우 45명(64.3%)으로 그중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용(S/W) 20명(44.4%), 기타 9명(20.0%), 디자인 7명(15.6%), 인터넷 관련 사업 5명(11.1%), 컨설팅 4명(8.9%) 순으로 조사되었다.

본 조사대상자의 통계학적 사항에 대한 빈도 분석 결과 상대적으로 법인사업자가 상대적으로 많으며, 사업 분야의 경우 서비스업 중에서도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용(S/W)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림 4-1> 조사대상자 기업 형태, 사업 업종 분포



<표 4-1> 조사대상자 기업형태, 사업 분야

변수		범주	빈도	%
기업 형태		개인사업자	23	32.9%
		법인사업자	47	67.1%
총 합			70	100.0%
사업 분야	제조업	ICT	8	11.4%
		기계·금속	5	7.1%
		전기·전자	5	7.1%
		비금속	3	4.3%
		기타	4	5.7%
	서비스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용(S/W)	20	28.6%
		인터넷 관련 사업	5	7.1%
		컨설팅	4	5.7%
		디자인	7	10.0%
		기타	9	12.9%
	총 합		70	100.0%

2. 부산지역 창업생태계 인식 현황

부산지역 창업생태계 인식 확인을 위해 조사대상자를 대상으로 정책(Policy) 지표를 측정한 결과는 <표 4-2>와 같다. ‘지방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의 경우 매우미비(0%), 미비(1.4%), 보통(34.3%), 양호(57.1%), 매우양호(7.1%)로 나타났고, ‘투자 및 지원제도’는 통계자료 미확보로 인해 중간 값으로 대체하였다. ‘창업기업 설립 및 성장의 행정규정 용이성’의 경우 매우미비(5.7%), 미비(0%), 보통(14.3%), 양호(70%), 매우양호(10%)로 나타났으며, ‘창업기업 설립 및 성장의 행정규정 용이성’의 경우 매우미비(0%), 미비(0%), 보통(38.6%), 양호(61.4%), 매우양호(0%)로 나타났다.

<표 4-2> 정책(Policy) 지표 측정

하위요인	세부요인	정규화 값	지수
지역정책 및 규제	①지방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	0.68	11.33
	②투자 및 지원제도	0.50	8.33
	③정부 창업지원 프로그램의 도움 정도	0.70	11.66
행정처리	①창업기업 설립 및 성장의 행정규정 용이성	0.65	32.50
계			63.82

재무적 환경(Finance) 지표를 측정한 결과는 <표 4-8>와 같다. ‘지역 엔젤 투자자로부터의 투자’의 경우 통계자료 미확보로 인해 중간 값(정규화 값 0.5)으로 대체하였다. ‘지역 벤처캐피탈로부터의 투자 유치’의 경우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의 투자 유치 경험 통계(<표 4-3> 참조)를 활용하여 전국 16,798 사례 중 부산/경남/울산에서 이루어진 투자유치는 3,330건으로 전국 대비 19%(정규화 값 0.19)수준으로 확인되었다.

<표 4-3>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의 벤처캐피탈 투자유치 경험 통계

(단위 : 개, %)

시도	사 례 수	투자유치	투자유치 협상 중	과거 투자유치 실패	투자유치 경험 없음
전국	16,798	6.6	0.0	0.2	93.2
서울/경기/인천	8,546	3.9	0.7	0.0	95.4
대전/세종/충청/강원	4,353	1.5	1.3	0.0	97.2
부산/경남/울산	3,330	7.0	0.0	1.1	91.8
대구/경북	2,161	4.7	1.2	0.0	94.1
광주/전라/제주	403	8.0	0.0	0.0	92.0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2017

‘지역 엔젤펀드를 통한 충분한 자금 조달 가능성’은 지역별 엔젤투자자협회 등록 회원 현황(<표 4-4> 참조) 기준을 활용하여 전국 9,896명 중 359명으로 정규화 값 0.04로 조사되었다.

<표 4-4> 지역별 엔젤투자자 현황

(단위 : 명, %)

지 역	강 원	경 기	경 남	경 북	광 주	대 구	대 전	부 산	서 울	울 산	인 천	전 남	전 북	세 주	충 남	충 북	세 종	계
명	118	2,412	249	96	213	240	270	359	5,024	74	342	70	121	78	134	85	11	9,896
비 율	1.19	24.4	2.52	0.97	2.15	2.43	2.73	3.63	50.8	0.75	3.46	0.71	1.22	0.79	1.35	0.86	0.11	100

출처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6

‘지역 벤처캐피탈로부터 충분한 자금조달 가능성’의 경우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6)의 지역별 벤처캐피탈 현황(<표 4-5> 참조)을 활용하여 전국 118명 중 5명으로 4.24%(정규화 값 0.04)로 조사되었다.

<표 4-5> 지역별 벤처캐피탈 현황

(단위 : 명, %)

지 역	강 원	경 기	경 남	경 북	광 주	대 구	대 전	부 산	서 울	울 산	인 천	전 남	전 북	세 주	충 남	충 북	세 종	계
명	0	8	0	0	1	1	1	5	101	0	0	1	0	0	0	0	0	118
비 율	0.00	6.78	0.00	0.00	0.85	0.85	0.85	4.24	85.6	0.00	0.00	0.85	0.00	0.00	0.00	0.00	0.00	100

출처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6

‘정부지원금을 통한 창업자금 조달 용이성’의 경우 매우미비(2.9%), 미비(5.7%), 보통(71.4%), 양호(14.3%), 매우양호(5.7%)로 정규화 값 0.54으로 나타났다으며, ‘창업 시 충분한 정부지원금 보유’는 중소벤처기업부(2017)의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의 정책 자금 수령 경험 및 금액(평균) 통계(<표 4-6> 참조)를 활용하여 전국 평균 수령금액 358백만 원 대비 부산지역 255백만 원으로 정규화 값 0.71로 조사되었다.

<표 4-6>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의 정책자금 수령 경험 및 금액 통계

(단위 : 건, %, 백만원)

시도	사례 수	수령 경험 비율	평균 수령 금액
전국	16,798	32.3	358
서울/경기/인천	8,546	37.3	399
대전/세종/충청/강원	4,353	43.1	268
부산/경남/울산	3,330	23.8	255
대구/경북	2,161	33.5	260
광주/전라/제주	403	48.9	148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2017

‘지역 내 초기 창업단계 투자의 활발 정도’는 (재)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2018)의 『기업가정신실태조사(개인편/기업편)』의 투자유형 통계(<표 4-7>참조)를 활용하여 전국 투자 수혜 기업 수 5,935개 중 동남권 195개로 전국 대비 3.2% (정규화 값 0.03)로 조사되었다.

<표 4-7> 기업가정신실태조사(개인편/기업편)조사의 투자 유형 통계

(단위 : 개, %)

권역	사례 수	예비창업·조직투자	관련 기술 벤처기업 투자	초기 창업·중소기업 투자	인수합병을 통한 투자(M&A)
수도/강원권	5,595	31.6	28.1	43.6	8.8
충청권	95	0.0	55.7	44.3	0.0
대경권	49	22.4	53.9	0.0	46.1
동남권	195	100.0	100.0	100.0	0.0
소계	5,935	33.2	31.1	45.0	11.8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2017

<표 4-8> 재무적 환경(Finance) 지표 측정

하위요인	세부요인	정규화 값	지수
투자여부	①지역 엔젤투자자로부터의 투자 유치	0.50	6.25
	②지역 벤처캐피탈로부터의 투자 유치	0.19	2.37
자금조달 가능성	①지역 엔젤펀드를 통한 충분한 자금 조달 가능성	0.04	0.33
	②지역 벤처캐피탈로부터 충분한 자금 조달 가능성	0.04	0.33
	③정부지원금을 통한 창업자금 조달 용이성	0.54	4.49
자금충분도	①창업 시 충분한 정부지원금 보유	0.71	17.75
초기단계 투자	①지역 내 초기 창업단계 투자의 활발 정도	0.03	0.75
계			32.27

문화(Culture) 지표를 측정한 결과는 <표 4-9>와 같다. ‘위험/실패에 대한 태도’의 경우 매우미비(5.7%), 미비(17.1%), 보통(30%), 양호(42.8%), 매우양호(4.3%)로 정규화 값 0.56으로 나타났고, ‘지역 내 창업가에 대한 사회적 위치 인식’은 매우미비(2.9%), 미비(10%), 보통(48.6%), 양호(27.1%), 매우양호(11.4%)로 정규화 값 0.59로 조사되었다. ‘직업 전환 시 고용주 희망’은 매우미비(11.4%), 미비(17.1%), 보통(21.4%), 양호(50%), 매우양호(0%)로 정규화 값 0.53 이었으며, ‘개인적 성공에 대한 우호적인 문화’는 매우미비(0%), 미비(51.4%), 보통(34.3%), 양호(12.9%), 매우양호(1.4%)로 정규화 값 0.41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지역주민들의 창의성과 혁신성 보유’의 경우 매우미비(0%), 미비(4.3%), 보통(37.1%), 양호(45.7%), 매우양호(12.8%)로 가장 높은 정규화 값인 0.67로 조사되었다.

<표 4-9> 문화(Culture) 지표 측정

하위요인	세부요인	정규화 값	지수
위험/실패 태도	① 위험/실패에 대한 태도	0.56	14.00
사회적 지위	① 지역 내 창업가에 대한 사회적 위치 인식	0.59	14.75
창업의지	① 직업 전환 시 고용주 희망	0.53	13.25
우호적 문화	① 개인적 성공에 대한 우호적인 문화	0.41	5.13
	② 지역주민들의 창의성과 혁신성 보유	0.67	8.38
계			55.51

시장(Market) 지표를 측정한 결과는 <표 4-11>와 같다. ‘지역 창업기업들의 국내시장 진출의 용이성’의 경우 매우미비(0%), 미비(2.9%), 보통(21.4%), 양호(57.1%), 매우양호(18.6%)로 정규화 값 0.73이 나타났고, ‘지역 창업기업들의 신규시장 진출의 용이성’은 매우미비(0%), 미비(11.4%), 보통(40%), 양호(40%), 매우양호(8.6%)로 정규화 값 0.61으로 나타났다. ‘지역 창업가 네트워크 형성’의 경우 매우미비(1.4%), 미비(1.4%), 보통(21.4%), 양호(41.4%), 매우양호(34.3%)로 정규화 값 0.76으로 도출되었다. ‘지역 창업기업의 생존율’과 ‘지역신생기업의 비율’의 경우 통계청(2017)의 『기업생멸행정통계』 지역별

신생기업 생존율 통계(<표 4-10> 참조) 자료를 활용하며, ‘지역창업기업의 생존율’의 경우 부산지역 활동 기업 수 405,205개 중 신생기업 3년 생존율 42.2%(정규화 값 0.42)로 조사되었으며, ‘지역신생기업의 비율’의 경우는 전국 신생기업 수 913,340개 중 부산지역 55,497개로 정규화 값 0.06으로 조사되었다.

<표 4-10> 기업생멸행정통계의 지역별 활동기업 수 및 신생기업 생존율 통계

(단위 : 개, %)

지역	활동	신생	3년 생존율
전체	6,050,748	913,340	41.5
서울	1,341,762	194,876	43.0
부산	405,205	55,497	42.2
대구	283,123	38,961	43.8
인천	309,775	49,625	39.5
광주	155,837	24,448	38.7
대전	166,399	24,582	39.9
울산	121,588	18,620	40.0
세종	26,096	7,069	44.2
경기	1,502,559	241,291	41.9
강원	177,905	25,527	40.3
충북	182,418	26,974	39.2
충남	231,187	36,611	39.9
전북	195,980	27,719	41.4
전남	192,084	27,595	40.6
경북	297,324	41,934	41.4
경남	374,215	55,178	39.2
제주	87,291	16,833	41.5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2017

<표 4-11> 시장(Market) 지표 측정

하위요인	세부요인	정규화 값	지수
시장의 접근성	①지역 창업기업들의 국내시장 진출의 용이성	0.73	12.17
	②지역 창업기업들의 신규시장 진출의 용이성	0.61	10.17
네트워크	①지역 창업가 네트워크 형성	0.76	25.33
설립 및 생존	①지역 창업기업의 생존율	0.42	7.00
	②지역신생기업의 비율	0.06	1.00
계			55.67

인적자원(Human capital) 지표를 측정한 결과는 <표 4-16>와 같다. ‘지역의 창업교육 경험 유무 및 참여 횟수’의 경우 매우미비(4.3%), 미비(15.8%), 보통(51.4%), 양호(20%), 매우양호(8.6%)로 정규화 값 0.53으로 나타났고, ‘창업 경험’의 경우 중소벤처기업부(2017)의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의 창업주의 과거 창업 경험 및 결과 통계 자료(<표4-12> 참조)를 활용하여 전국 창업경험 있음의 5,460명 대비 부산/경남/울산 543명으로 정규화 값 0.10으로 조사되었다.

<표 4-12> 창업주의 과거 창업 경험 및 결과 통계

(단위 : 개, %)

시도	사례 수	창업경험O	창업경험X
서울/경기/인천	16,235	18.7	81.3
대전/세종/충청/강원	8,547	14.0	86.0
부산/경남/울산	3,671	14.8	85.2
대구/경북	2,637	13.8	86.2
광주/전라/제주	2,200	13.7	86.3
전체	33,290	16.4	83.6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2017

‘지역의 창업교육 제공’은 (재)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2018)의 『기업가정신실태조사(개인편/기업편)』의 기업가정신, 창업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원 형태 통계(<표 4-13> 참조)를 활용하여 전국 기업가 정신 및 창업 프로그램 44,614개 중 동남권 사내 정규 프로그램, 비정기적 프로그램과 중고등학교 및 대학교 프로그램 합계인 10,325개로 정규화 값 0.23을 도출하였다.

<표 4-13> 기업가정신, 창업교육 프로그램 운영 형태 통계

(단위 : 개, %)

권역	사례 수	사내 정규	사내 특강	중·고·대 특강
수도/강원	30,592	14.8	61.8	15.4
충청	2,061	33.8	48.7	16.6
대경	808	75.3	23.2	0.5
동남	10,325	77.7	39.3	4.9
호남/제주	828	20.7	8.3	44.7
전체	44,614	31.4	54.3	13.3

출처 : (재)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2018

‘지역 소재 대학에서의 창업교육과정 개설’은 대학알리미(2018)의 『창업 교육지원현황(대학)』 통계(<표 4-14>참조)를 활용 하여 전국 대학 창업 교육과정 개설 수 7,141개 대비 부산지역 492개로 정규화 값 0.06으로 나타났다.

<표 4-14> 대학알리미의 창업교육지원현황 통계

(단위 : 개, 명)

지역	정규 창업강좌		비정규교과	
	강좌 수	이수자 수	개최 수	참여인원 수
전체	6,065	241,341	1,076	85,395
서울	1,417	66,282	34	1,952
부산	405	16,079	87	4,357
대구	121	5,903	45	3,052
인천	103	6,530	117	6,255
광주	177	5,662	87	3,669
대전	121	5,903	43	1,667
울산	33	2,223	70	3,379
세종	35	796	91	5,461
경기	710	31,941	244	13,035
강원	274	7,878	11	661
충북	385	12,172	18	739
충남	1,070	34,632	28	1,497
전북	236	12,635	15	1,274
전남	103	6,530	51	2,066
경북	442	15,162	5	172
경남	164	7,251	91	6,092
제주	56	2,224	39	3,598

출처 : 대학알리미, 2018

기술자의 세부요인인 ‘지역 내 기술자의 고용 용이성’의 경우 통계청(2017)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17)의 자료(<표 4-15>참조)를 토대로 부산 지역 총 종사자 수(1,424,317명) 대비 연구 개발 인력(20,515명) 비중(1.4%)과 총 종사자 수(1,424,317명) 대비 하이테크 업종의 종사자(81,642명) 비율(5.7%)을 합산하여 정규화 값 0.07을 도출하였다.

<표 4-15> 전국·부산 사업체 종사자 수와 연구개발인력, 하이테크 종사자 수 현황

(단위 : 명)

구분	지역	구성	종사자 수
전체 사업체 종사자 현황	전국	-	21,626,904
	부산	-	1,424,317
연구개발인력 현황	부산	공공연구기관	1,769
		대학	9,053
		기업체	9,693
하이테크 종사자 현황	부산	제조업	21,264
		서비스업	60,378

출처 : 통계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7, 재구성

<표 4-16> 인적자원(Human capital) 지표 측정

하위요인	세부요인	정규화 값	지수
교육	①지역의 창업교육 경험 유무 및 참여 횟수	0.53	6.62
	②창업경험	0.10	1.25
	③지역의 창업교육 정보	0.23	2.88
	④지역 소재 대학에서의 창업교육과정 개설	0.06	0.75
기술자	①지역 내 기술자의 고용 용이성	0.07	3.5
계(점)			15.00

지원(Support) 지표를 측정한 결과는 <표 4-18>와 같다. ‘지역의 창업지원 기관(창업보육센터, 창업선도대학)’의 경우 창업보육센터 네트워크 시스템 (2019), 창업진흥원(2019), 통계청(2018) 자료(<표 4-17>참조)를 토대로 지역 경제활동인구(1,729천명) 대비하여 부산 지역 내 창업지원기관 총 24개와 10만 명 당 1개의 창업지원 기관이 필요함으로 정규화 값 0.01로 조사되었다.

<표 4-17> 지역 경제활동 인구와 창업보육센터 및 창업선도대학 통계

(단위 : 개, 명)

부산 지역 및 부산울 포함하는 지역	구분	창업보육센터	창업선도대학	경제활동인구
	지역	부산	동남	부산
	수	17	7	1,756,000

출처 : 창업진흥원, 보육센터 네트워크 시스템, 2019; 통계청, 2018, 재구성

‘지역 창업관련 기관 접촉의 용이성 및 가능성’의 경우 매우미비(0%), 미비(0%), 보통(31.4%), 양호(58.6%), 매우양호(10%)로 보육시설에 대비하여 정규화 값 0.7의 높은 수치로 나타났고, ‘지역 창업기업에게 필요한 법률, 회계, 기술 등 자문지원’에 대한 조사결과 매우미비(0%), 미비(1.4%), 보통(24.3%), 양호(50%), 매우양호(24.3%)으로 정규화 값 0.74로 조사되었으며, ‘지역 내 연간 창업 컨퍼런스, 대회 등 창업행사’의 경우 매우미비(0%), 미비(1.4%), 보통(22.9%), 양호(55.7%), 매우양호(20%)로 정규화 값 0.74로 높게 나타났다.

<표 4-18> 지원(Support) 지표 측정

하위요인	세부요인	정규화 값	지수
보육시설	① 지역의 창업지원 기관(창업보육센터, 창업선도대학)	0.01	0.17
	② 지역 창업관련 기관 접촉의 용이성 및 가능성	0.70	11.67
자문	① 지역 창업기업에게 필요한 법률, 회계, 기술 등 자문지원	0.74	24.67
창업행사	① 지역 내 연간 창업 컨퍼런스, 대회 등 창업행사	0.74	24.67
계			61.18

마지막으로 지식(Knowledge) 지표를 측정한 결과는 <표 4-22>와 같다. ‘지역 창업기업을 위한 R&D 투자’의 경우 통계청(2017)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17) 데이터(<표 4-19> 참조)를 통해 부산지역 GRDP(83,298,746백만 원) 대비 공공 연구기관, 대학, 기업체의 R&D 지출액(1,403,273백만 원) 비중(1.6%)을 산출하여 정규화 값 0.02을 도출하였다.

<표 4-19> 부산 지역 GRDP와 연구개발투자비 통계

(단위 : 백만원)

GRDP	연구개발투자비		
-	공공연구기관	대학	기업체
83,298,746	317,280	422,944	663,049

출처 : 통계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7, 재구성

‘지역 창업기업들의 신기술에 대한 접근 용이성’의 경우 매우미비(2.9%), 미비(2.9%), 보통(67.1%), 양호(14.3%), 매우양호(12.9%)로 정규화 값 0.58으로 나타났고, ‘지역 창업기업에게 신기술, 과학, 지식의 효율적 이전’의 경우 매우미비(0%), 미비(0%), 보통(60%), 양호(15.7%), 매우양호(24.3%)로 정규화 값 0.66으로 조사되었다. ‘기업 간 기술협력’과 ‘대학/정부 및 국가·민간 연구기관 간 기술협력’ 세부요인의 경우 중소벤처기업부(2017)의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의 중소벤처기업, 대기업, 해외 외국계 기업 간 협력활동 경험률 특성 통계 자료(<표 4-20>참조)를 활용하여 산출하며 ‘기업 간 기술협력’은 중소벤처기업, 대기업, 외국계 기업의 협력활동 경험률 합산으로 정규화 값 0.04이 산출되었으며, ‘대학 및 국가·민간 연구기관 간 기술협력’은 대학(산학협력), 정부 및 국가연구기관, 민간연구기관과의 협력활동 경험률의 합으로 정규화 값 0.53으로 조사되었다.

<표 4-20>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의 협력활동 경험률 통계

(단위 : 개, %)

시도	사례 수	대학 (산학협력)	국가연구 기관	민간연구 기관	중소벤처 기업	대기업	외국계 기업
서울/경기/인천	16,798	26.4	15.3	1.4	3.6	3.3	0.6
대전/세종/충청/강원	8,546	35.8	17.0	1.8	2.5	3.2	0.3
부산/경남/울산	4,353	35.0	17.0	1.4	1.5	2.3	0.0
대구/경북	3,330	34.9	11.9	2.6	1.1	4.1	0.7
광주/전라/제주	2,161	42.1	18.4	2.6	7.7	4.7	0.8
전국	35,188	13.7	5.7	5.7	0.0	0.0	5.7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2017

‘지역 창업기업들의 신기술 확보할 재무적 능력’의 경우 매우미비(10%), 미비(15.7%), 보통(68.6%), 양호(5.7%), 매우양호(0%)으로 비교적 낮은 정규화 값 0.43 조사되었으며, ‘기술 확보 용이성’은 통계청(2017)과 특허청(2017) 데이터(<표 4-21>참조) 중 인구 10만 명당 지역 인구수(3,470,653명)와 비례한 지역 지식재산권(특허 3,061건, 실용신안 90건, 디자인 1,794건, 상표 3,136건) 수를 산출하여 정규화 값 1.0을 도출하였다.

<표 4-21> 시도별 지식재산 현황 통계

(단위 : 개, %)

시도	인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서울	9,857,426	27,527	637	14,803	46,607
부산	3,470,653	3,061	90	1,794	3,136
대구	2,475,231	2,612	104	2,804	2,244
인천	2,948,542	3,400	180	2,343	3,255
광주	1,463,770	1,694	44	849	1,153
대전	1,502,227	6,503	64	814	2,085
울산	1,165,132	1,269	32	317	605
경기	12,873,895	24,820	1,032	14,008	23,334
강원	1,550,142	1,459	40	674	1,668
충북	1,594,432	1,861	59	752	1,842
충남	2,116,770	3,492	81	1,172	2,373
전북	1,854,607	1,860	45	612	1,522
전남	1,896,424	1,616	76	504	1,254
경북	2,691,706	4,633	81	1,001	1,941
경남	3,380,404	3,738	206	1,225	2,038
제주	657,083	384	5	192	1,520
세종	280,100	307	16	110	407
기타	-	611	18	78	9
총계	51,778,544	90,847	2,810	44,052	96,993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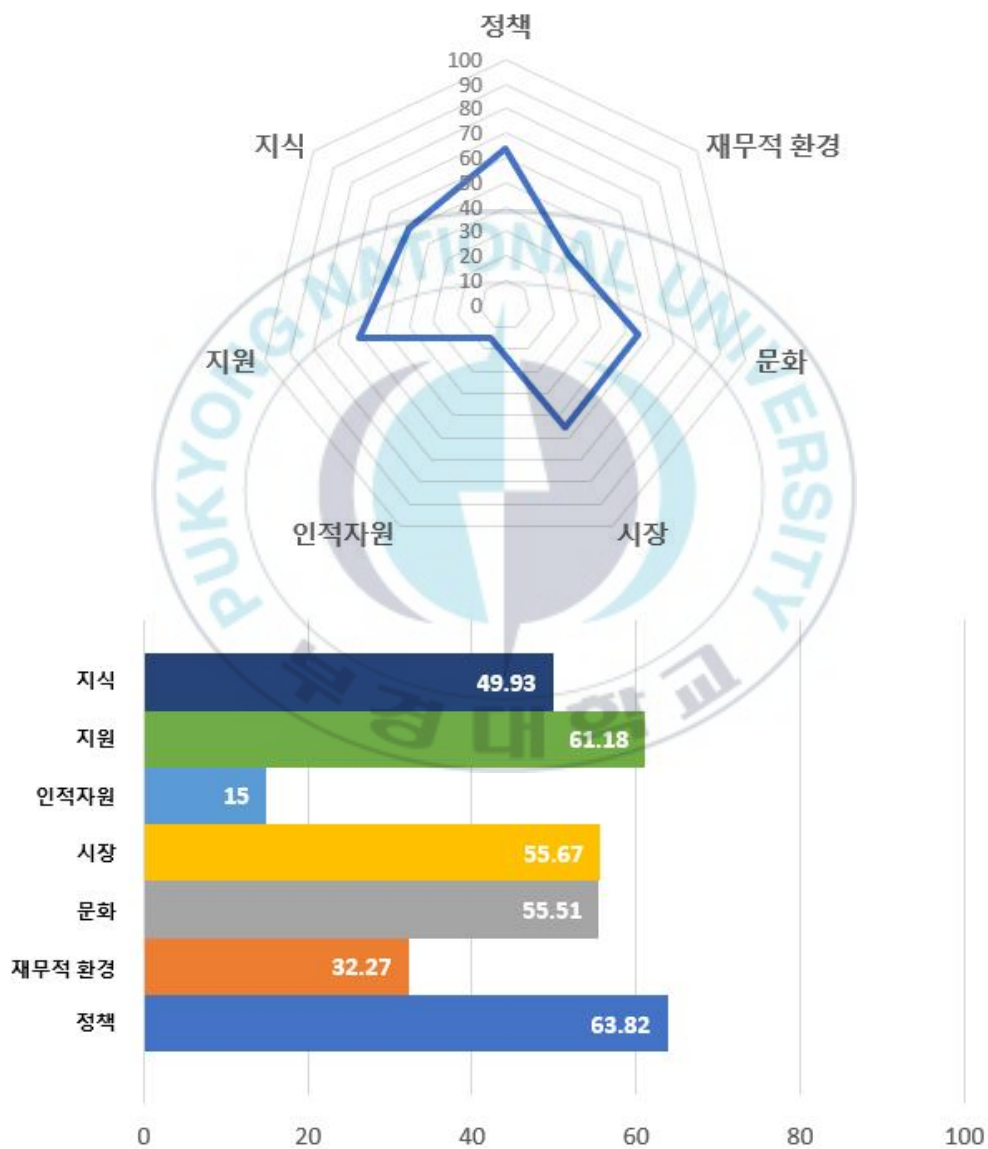
‘아이디어 상업화가 가능한 지역의 기반 조성’의 경우 매우미비(0%), 미비(7.1%), 보통(50%), 양호(34.3%), 매우양호(8.6%)으로 정규화 값 0.61 조사되었다.

<표 4-22> 지식(Knowledge) 지표 측정

하위요인	세부요인	정규화 값	지수
기술	①지역 창업기업을 위한 R&D 투자	0.02	0.3
	②지역 창업기업들의 신기술에 대한 접근 용이성	0.58	7.25
협력	①지역 창업기업에게 신기술, 과학, 지식의 효율적 이전	0.66	5.50
	②기업간 기술협력	0.04	0.33
	③대학/정부 및 국가·민간 연구기관 간 기술협력	0.53	4.42
기술확보	①지역 창업기업들의 신기술 확보할 재무적 능력	0.43	4.38
	②기술확보 용이성	1.00	12.5
기반환경	①아이디어 상업화가 가능한 지역의 기반 조성	0.61	15.25
계			49.93

부산지역 창업생태계 측정 결과 정책63.82p, 재무적 환경32.27p, 문화 55.51p, 시장55.67p, 인적자원15.00p, 지원61.18p, 지식49.93p으로 평균 47.63p을 기록하였다(<그림 4-2>, <표 4-23> 참조).

<그림 4-2> 부산지역 기술창업생태계 측정 결과 요약



<표 4-23> 부산지역 창업생태계 측정 연구 결과

지표	하위요인	지수
정책	지역 정책 및 규제	31.32
	행정처리	32.50
	합 계	63.82
재무적 환경	투자여부	8.62
	자금조달 가능성	5.15
	자금충분도	17.75
	초기단계 투자	0.75
	합 계	32.27
문화	위험/실패 태도	14.00
	사회적 지위	14.75
	창업의지	13.25
	우호적 문화	13.51
	합 계	55.51
시장	시장의접근성	22.34
	네트워크	25.33
	설립 및 생존	8.00
	합 계	55.67
인적자원	교육	11.50
	기술자	3.50
	합 계	15
지원	보육시설	11.84
	자문	24.67
	창업행사	24.67
	합 계	61.18
지식	기술	7.55
	협력	10.25
	기술확보	16.88
	기반환경	15.25
	합 계	49.93
합 계 평 균		47.63

3. 파일럿 테스트 결과와 부산지역 창업생태계 비교

창업진흥원(2019)는 지역 창업생태계 활성화 관련 분석 모델·지표 개발과 측정 결과 산출 테스트를 위하여 대도시, 중소도시, 소도시로 나누어 파일럿 테스트를 실시하였다. 기존 파일럿 테스트 측정 결과와 부산지역 창업생태계 측정 결과를 아래의 <표 4-24>와 같이 비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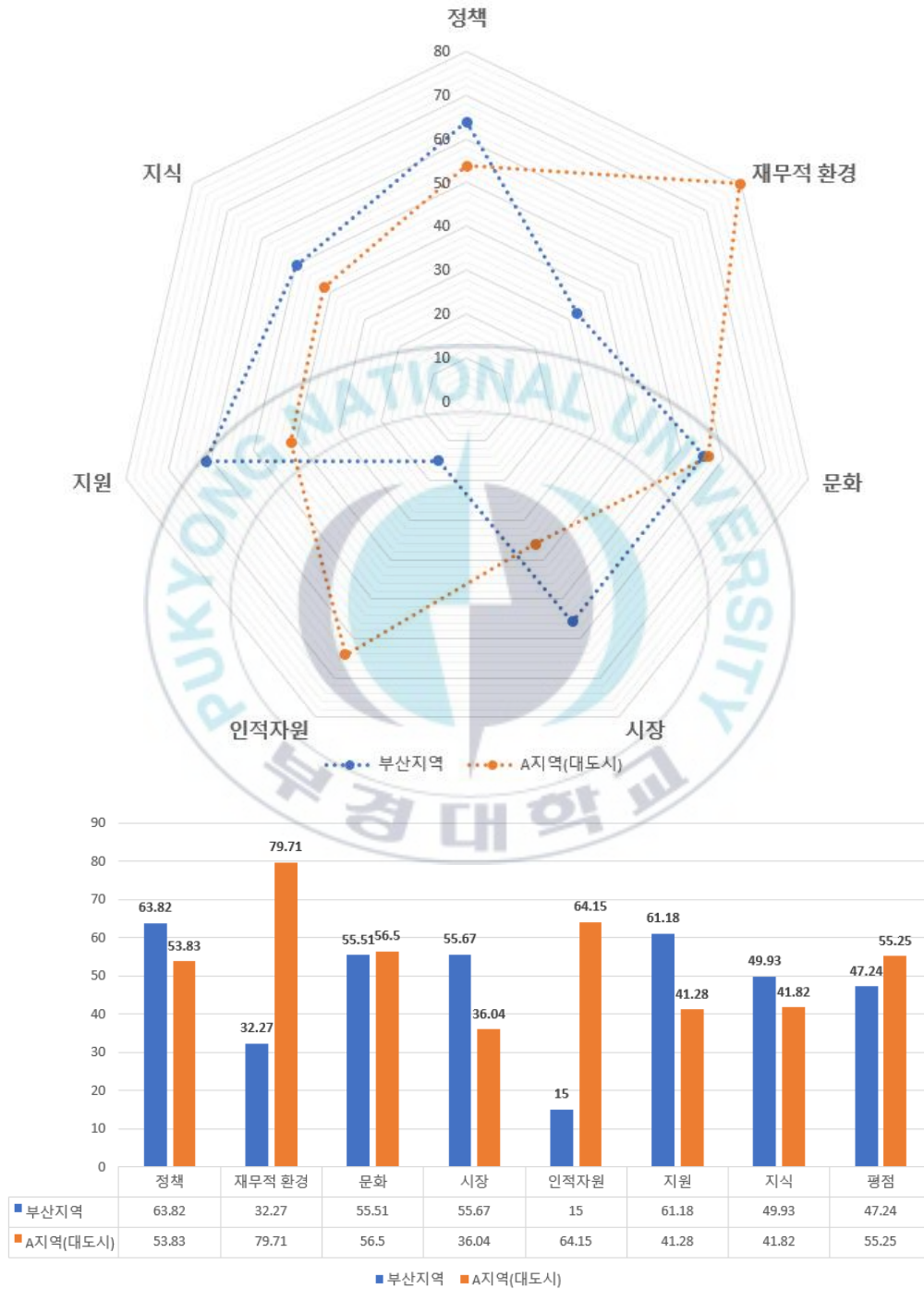
<표 4-24> 창업 생태계 파일럿 테스트 결과와 부산지역 결과 비교

지표	A지역(대도시)	B지역(중소도시)	C지역(소도시)	부산지역
정책	53.83	53.00	47.50	63.82
재무적 환경	79.71	32.21	20.67	32.27
문화	56.50	49.25	44.63	55.51
시장	36.04	31.45	28.79	55.67
인적자원	64.15	34.21	32.83	15.00
지원	41.28	47.39	44.31	61.18
지식	41.82	32.30	32.08	49.76
총점	55.25	39.97	35.83	47.60

출처 : 창업진흥원, 2019

부산지역의 경우 시장(55.67p)과 지원(61.18p)지표에서 타 지표에 비해 높게 평가 되었으며, 정책(63.82p)의 지표가 가장 높게 평가되었다. 하지만 한국 내 제2의 도시인 부산지역이 파일럿 테스트 A지역(대도시)와 견주어 보았을 때 평균적으로 낮은 점수를 보였으며, 그중 A지역(대도시) 인적자원(64.15p) 지표에 비해 부산지역 인적자원(15.00p)은 C지역(소도시)보다도 낮게 평가 되고 있다. <그림 4-3>은 A지역(대도시)과 부산지역의 결과비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이다.

<그림 4-3> 부산지역 측정 결과와 A지역(대도시) 비교



V. 결론

1. 연구 결과의 요약

본 연구는 부산지역의 성공적 창업생태계 구축 및 안착을 목표로 창업진흥원(2019)에서 진행한 창업생태계 측정 모델·지표를 통해 부산지역의 창업생태계 측정과 기존 파일럿 테스트 데이터와의 비교 분석으로 부족한 지표와 해당 지표의 세부요인을 도출하는 것에 목적을 두었다.

먼저 창업, 기술창업, 창업생태계의 정의와 선행연구를 통해 이론적 배경을 서술하였으며, FGI와 델파이조사를 통해 도출된 창업생태계 측정 모델·지표에 대한 도출과정의 이해와 데이터의 처리 방법에 대해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후 7개의 지표(정책, 재무적 환경, 문화, 시장, 인적자원, 지원, 지식) 내부의 하위요인 아래의 세부요인 중 정성 데이터 수집을 위하여 부산지역 내 창업기업 70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으며, 통계청, (재)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중소벤처기업부 등의 통계 데이터를 통해 정량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정량, 정성 데이터에 대한 측정을 통해 지표에 대한 정규화 값과 지수를 산출하였고, 합과 평균을 통해 부산지역의 창업생태계 결과 지수를 도출하였다. 결과 데이터를 통해 창업진흥원(2019)에서 시행한 파일럿 테스트와 비교분석을 통해 부산지역 창업생태계 문제점과 효과적인 발전 방향에 대해 탐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도출되었다.

첫째, 연구모형에 따라 정책, 재무적 환경, 문화, 시장, 인적자원, 지원, 지식 총 7개의 지표와 지표별 2~4개의 하위요인과 하위요인별 1~4개의 세부요인으로 나누어 총 38개 세부요인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그중 20개의 정성적 지표에 대한 설문조사와 정량적 지표에 대한 자료 수집을

진행하였다.

둘째, 부산지역 창업생태계를 측정하기 위하여 부산 내 창업기업 70개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으며,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서비스업 45개, 제조업 25개이며, 법인사업자 47개, 개인사업자 23개로 분포되었다.

셋째, 세부요인별 정규화 값 및 지수 값을 산출한 결과 정책 지표(지역정책 및 규제 31.32p, 행정처리 32.50p)는 총63.82p, 재무적 환경 지표(투자여부 8.62p, 자금조달 가능성 5.15p, 자금충분도 17.75p, 초기단계 투자 0.75p)는 32.27p, 문화 지표(위험/실패태도 14.00p, 사회적 지위 14.75p, 창업의지 13.25p, 우호적 문화 13.51p) 55.51p, 시장 지표(시장의 접근성 22.34p, 네트워크 25.33p, 설립 및 생존 8.00p)55.67p, 인적자원(교육 11.50p, 기술자 3.50p) 15.00p, 지원(보육시설 11.84p, 지문 24.67p, 창업행상 24.67p) 61.18p, 지식(기술 7.55p, 협력 10.25p, 기술 확보 16.88p, 기반환경 15.25p) 49.33p로 총점 47.63p로 나타났다.

넷째, 창업진흥원(2019)에서 시행한 파일럿 테스트 중 A지역(대도시)과 본 연구로 측정된 부산지역 창업생태계 결과 값을 비교해 본 결과 부산지역의 경우 정책, 시장, 지원에 대한 지표가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재무적 환경, 인적자원에 대한 지표가 A지역(대도시)에 비해 현격하게 낮게 측정된 것을 확인하였다.

다섯째, 비교 결과를 통해 A지역(대도시)대비 낮게 측정된 재무적 환경, 인적자원 지표에 영향을 준 세부요인에 대해 검토한 결과, 서울, 경기 지역에 밀집되어 있는 엔젤투자자 및 벤처캐피탈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투자 건수의 압도적 차이로 인한 여파로 재무적 환경이 낮게 측정되었다. 인적자원 지표의 경우 창업(정규, 비정규)강좌 수 보다 이수자 수를 중심으로 시행된 교육으로 인해 외부적으로 노출된 강좌가 적은 점과 지역 교육을 통해 배출된 연구 개발인력과 하이테크 종사자 인력이 타 지역(서울, 인천, 경기)으로 유출되어 지표가 낮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2. 연구의 시사점과 한계점

본 연구를 통해 산출된 부산지역 창업생태계 측정값에 대한 시사점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산지역 창업생태계의 경우 수도권지역의 인구밀집으로 인해 창업에 중요한 요소인 투자부분에 대한 약점과 전문종사자의 유출 문제점이 도출되었다.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및 인적자원에 대한 수급이 지속적으로 가능하도록 지역 내 엔젤투자자 및 벤처캐피탈 유치와 전문기술자 배출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 및 지원이 구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문화지표 중 우호적인 창업문화 하위요인에 해당하는 ‘개인적 성공에 대한 우호적인 문화’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조사대상자의 절반인 36명이 미비하다고 기록하였다. 해당 지표는 창업을 장려하고 있는 현 정부에 대비하여 주변 시선 및 문화로 인해 창업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일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향후 창업에 대한 문화적 인식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지역 내 성공창업자에 대한 강연 및 다양한 홍보 매체를 이용한 창업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부산지역 내 70개 기술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여 지표를 도출하였지만, 더욱 객관적인 자료 수집을 위하여 창업에 대한 교육과 지원을 수행하는 창업유관기관 종사자에 대한 의견이 추가적으로 분석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연구 결과 측정을 위한 정량적 지표로 사용된 데이터 중 중간 값과 동남권 및 부산/울산/경남과 같은 포괄적 데이터로 결과 값을 산출하였다. 따라서 부산지역으로 한정되어 있는 데이터를 통해 확실한 결과 값을 산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고 문헌

1. 국내·외 문헌

김성훈(2016), “국내 창업생태계 현황 및 인식 연구 : 창업자, 예비창업자, 학생을 중심으로 2015년 2016년 비교 분석”,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재욱(2013), “창업가정신과 개인적 특성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연구 : 청년층과 시니어층의 세대 간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박동호(2015), “부산시 창업 지원정책 개선 방안 연구 : 창업생태계적 관점에서”,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박상용(2003), “벤처기업 CEO의 기업가정신, 구성원의 임파워먼트, 조직유효성의 관계에 대한 구조적 모형”, 호서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안홍재(2019), “기술창업기업의 입지환경 특성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오정택(2018), “혁신성장을 위한 창업·벤처 지원정책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정보통신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윤보현, 박준병(2007), “벤처기업 경영자 특성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대덕연구개발특구를 중심으로”, 벤처창업연구, 2(3), 145-168

이요행, 이건남, 김강호, 변정현, 정명진, 이지홍(2012), “대학생 창업활동 및 창업지원제도 현황 분석”, 한국고용정보원, 2

이영주(2018), “창업가가 인식한 창업지원사업 만족도가 창업기업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한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정대용, 유호상(1999), “한국 SW 벤처기업에 대한 벤처캐피탈 투자현황과 개선방안”, 사회과학논총

최관섭(2018), “창업자의 특성과 창업지원정책 유형이 기술창업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 국민대학교, 석사학위논문KISTEP, R&D Status and Implications of Smart Factory for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KISTEP Issue Weekly Issue Paper 07, 2017.

GEM(2019), “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 Global Report”, London, UK

2. 보고서 및 기타

양현봉(2018), “창업정책의 추진실태와 효율화 방안”, 산업연구원, 중소기업금융연구

문민성(2016), “경기북부 창업생태계 조성방안”, 경기연구원, 정책연구 2016-51

BI-Net(2019. 06), 창업보육센터네트워크시스템

K-Startup(2019 .06), 창업진흥원 홈페이지

대학알리미(2018), 창업교육지원현황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2018), 기업가정신실태조사(개인편/기업편)

통계청(2017), 기업생멸행정통계

통계청(2015, 2016, 2017), 전국사업체조사

안승구(2017), “기술기반 창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

정부 정책 효과성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연구보고

관계부처 합동(2011), “희망한국 청년창업 활성화 방안”

양현봉, 박종복(2011), “청년창업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 방안”, 산업연구원

한국창업보육협회(2017), “기술창업기초”, 창업 연구자료

윤종록, 서성열, 김생수(2017). “청년 창업교육동기가 창업의지와 창업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한국창업학회 Conferences, 2017(1): 59-59

이우진, 김도현, 김종성 외2 (2019), “지역 창업생태계 활성화 관련 분석 모델·지표 개발 및 지역 창업인프라 구축·운영 사업의 성과지표”, 창업진흥원

강병오, 김진수(2010),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전 직영점 운영 활동이 가맹본부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 한국산 학기술학회, 제11권(9), 3210-3222.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귀사(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오며, 본 설문조사에 응해 주신 것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본 설문은 "지역 창업생태계 활성화 분석 모델을 이용한 부산지역 기술 창업 생태계 특징에 관한 연구"에 관한 것으로 본 연구를 통하여 부산 지역의 창업 생태계에 대한 현황 파악과 특징을 도출하여, 부산 창업생태계 발전 방향의 수립과 그 결정방향을 유도하기 위하여 귀하께 설문을 부탁드립니다.

귀사(하)가 응답하신 본 설문에 대한 내용은 『통계법 제 33조(비밀보호 등)』에 의거하여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며, 설문지에 응답하신 내용들은 오직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본 설문에 협조해주신 귀사(하)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건승과 발전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2020. 5

부경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기술경영학과
연구자 : 전 성 훈 (shjeon@codebros.co.kr)

I	기업 현황
----------	--------------

※ 귀사(하)의 현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란에 내용을 기재하시거나, 해당번호에 비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명		E-Mail	
응답자		연락처	
기업 형태	☐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귀사(하)의 사업 분야	제조업 분야		
	☐ 기계·금속 ☐ 전기·전자 ☐ 비금속 ☐ ICT ☐ 기타()		
	서비스업 분야		
	☐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용(S/W) ☐ 디자인 ☐ 컨설팅 ☐ 인터넷 관련 사업 ☐ 기타()		

II	창업생태계 설문 조사
-----------	--------------------

1. 정책(Policy)지표 설문

내용	점수				
	매우 미비	미비	보통	양호	매우 양호
지방정부의 창업 지원은 중요도 측면에서 우리 지역의 정책들 중 우선 순위가 높은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우리 지역(지방정부)의 창업지원 프로그램은 초기창업 및 기업 운영에 있어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우리 지역에서 창업기업 설립 및 성장에 대한 행정규정(허가, 규정, 보고)은 용이한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2. 재무적 환경(Finance)지표 설문

내용	점수				
	매우 미비	미비	보통	양호	매우 양호
우리지역에서 창업기업 설립 시 정부지원금을 충분히 지원받고 시작한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3. 문화(Culture)지표 설문

내용	점수				
	매우 미비	미비	보통	양호	매우 양호
우리지역에서는 창업 시 실패하더라도 수용해주는 문화를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우리지역에서는 성공한 창업자들이 비교적 높은 지위에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우리지역 내에 3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우리지역에서는 자신의 노력을 통해 성취된 개인적 성공에 아주 우호적인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우리지역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창의성과 혁신성을 갖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시장(Market)지표 설문

내용	점수				
	매우 미비	미비	보통	양호	매우 양호
우리지역의 창업기업들은 국내 시장에 쉽게 진출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우리지역의 창업기업들은 신규 시장에 쉽게 진입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우리지역의 창업가 네트워크는 비교적 잘 형성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인적자원(Human capital)지표 설문

내용	점수				
	매우 미비	미비	보통	양호	매우 양호
나는 현재 거주하는 지역에서 제공하는 창업교육에 참여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지원(Support)지표 설문

내용	점수				
	매우 미비	미비	보통	양호	매우 양호
우리지역의 창업기업은 지원을 받기 위해 창업관련기관 한 곳을 접촉하면 대부분 지원이 가능하다.	①.....	②.....	③.....	④.....	⑤.....
우리지역은 창업기업들에게 필요한 법률, 회계, 기술자문을 충분히 지원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우리지역에서는 창업을 위한 컨퍼런스 및 경진대회가 많이 열리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7. 지식(Knowledge)지표 설문

내용	점수				
	매우 미비	미비	보통	양호	매우 양호
우리지역의 창업기업들은 대기업과 같은 정도로, 새로운 연구, 기술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다.	①.....	②.....	③.....	④.....	⑤.....
우리지역의 학교, 연구기관에서 개발된 기술, 과학, 지식은 지역 기업에게 효율적으로 이전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우리지역의 창업기업들은 최신 기술을 확보할 재무적 능력 및 정부지원금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우리지역에는 아이디어를 상업화할 수 있는 좋은 기반이 조성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장시간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